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참여가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201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 전공
문 봉 애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참여가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주 동 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 전공

문 봉 애

문봉애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8월 25일



주 심 교육학박사 강 승 희 (인)

위 원 철학박사 이 현 민 (인)

위 원 철학박사 주 동 범 (인)

목 차

국문초록	v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4. 연구의 제한점.....	6
II. 이론적 배경	8
1. 결혼이주여성.....	8
가. 결혼이주여성의 개념과 특성.....	8
나.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11
2. 결혼이주여성과 평생학습.....	18
가.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필요성.....	18
나.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현황.....	20
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	26
가. 사회적응의 개념.....	26
나.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 실태.....	27
4.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참여와 한국사회적응간의 관계.....	28
III. 연구 방법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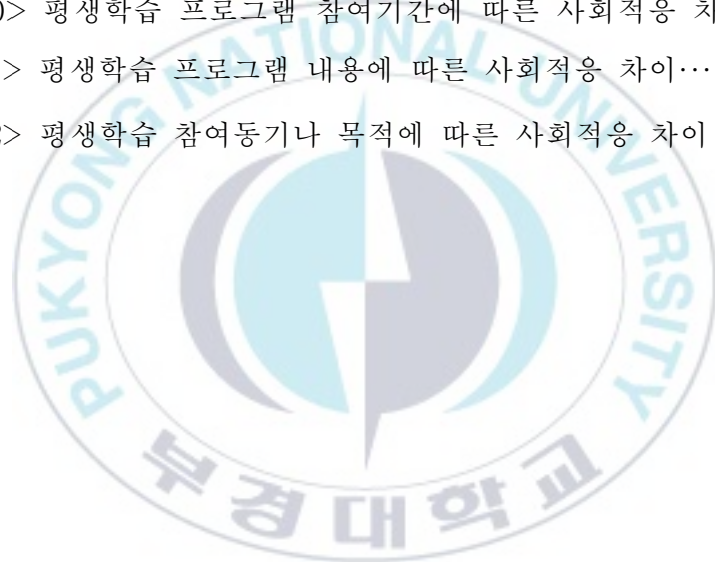
1. 연구대상	29
2. 측정도구	32
가.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33
나. 한국사회적응	33
3.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33
4. 자료수집절차	35
5. 자료처리방법	36
 IV. 연구 결과	 37
1. 평생학습 참여실태 및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37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실태 차이	40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60
4.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67
5. 평생학습 참여실태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73
6. 평생학습 참여실태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80
 V. 논의 및 결론	 86
1. 논의 및 결론	86
2. 시사점 및 제언	91
 참고문헌	 93
Abstract	96
 부 록	
설문지	98

표 목 차

<표 II-1> 외국인주민 현황	11
<표 II-2> 한국인 및 외국인과의 혼인 비교	13
<표 II-3> 국적취득 현황	15
<표 II-4> 출신국별 현황	16
<표 II-5> 거주지역별 현황	17
<표 II-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정책	20
<표 II-7> 다문화교육 지원정책	23
<표 II-8> 결혼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	25
<표 III-1> 개인적 특성 요인(N=327)	29
<표 III-2> 측정도구의 구성	32
<표 III-3>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4
<표 III-4> 한국사회적응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4
<표 III-5> 조사대상자의 기본 정보	35
<표 III-6> 설문지 회수현황	36
<표 IV-1> 평생학습 참여실태(N=327)	38
<표 IV-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39
<표 IV-3> 지역별 참여 평생교육기관 차이	40
<표 IV-4> 지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 차이	41
<표 IV-5> 지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 차이	42
<표 IV-6> 지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나 목적 차이	43
<표 IV-7> 지역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차이	44
<표 IV-8> 연령별 참여 평생교육기관 차이	45
<표 IV-9> 연령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 차이	46

<표 IV-10> 연령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 차이	47
<표 IV-11> 연령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나 목적 차이	48
<표 IV-12> 연령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차이	49
<표 IV-13> 최종학력별 참여 평생교육기관 차이	50
<표 IV-14> 최종학력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 차이	51
<표 IV-15> 최종학력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 차이	52
<표 IV-16> 최종학력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나 목적 차이	53
<표 IV-17> 최종학력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차이	54
<표 IV-18> 한국어사용능력별 참여 평생교육기관 차이	55
<표 IV-19> 한국어사용능력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 차이	56
<표 IV-20> 한국어사용능력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 차이	57
<표 IV-21> 한국어사용능력별 평생학습 참여동기나 목적 차이	58
<표 IV-22> 한국어사용능력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차이	59
<표 IV-23> 지역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60
<표 IV-24> 연령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61
<표 IV-25> 최종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62
<표 IV-26> 결혼기간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63
<표 IV-27> 가정소득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64
<표 IV-28> 한국어 사용능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66
<표 IV-29> 지역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67
<표 IV-30> 연령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68
<표 IV-31>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69
<표 IV-32> 결혼기간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70
<표 IV-33> 가정소득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71
<표 IV-34> 한국어 사용능력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72

<표 IV-35> 평생교육기관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73
<표 IV-36> 평생학습 참여기간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75
<표 IV-37>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77
<표 IV-38> 평생학습 참여동기나 목적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78
<표 IV-39>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80
<표 IV-40>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82
<표 IV-41>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83
<표 IV-42> 평생학습 참여동기나 목적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84



그 립 목 차

[그림 Ⅱ-1]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12
[그림 Ⅱ-2]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14
[그림 Ⅱ-3]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현황.....	18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참여가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 봉 애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 전공

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참여가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평생학습 참여실태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한국사회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실태별로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여섯째,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실태별로 한국사회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등의 연구문제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부산, 울산 및 충북 지역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각 단체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 327명을 선정하였으며, 측정도구로는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11문항, 평생학습 참여실태에 관한 5문항,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7문항, 한국사회적응 정도를 묻는 역채점 10문항 등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특성과 평생학습 참여실태 변수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에서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960이었고 한국사회적응 정도에 관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954로 양호한 분석결과가 나왔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 참여실태에서 참여 평생교육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36.1%)가, 참여기간은 1년 이상(49.2%)이, 참여 프로그램 내용은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74.0%)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는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

해서(47.4%)가, 희망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39.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특성별로 평생학습 참여만족도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이, 연령별로는 20대가, 최종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참여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결혼기간과 가정소득 및 한국어사용능력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특성별로 한국사회적응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부산지역이,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결혼기간별로는 11년 이상인 집단이, 최종학력별로는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이, 가정소득별로는 월소득 300만원 이상 집단이, 한국어 사용능력별로는 '상' 집단이 한국사회적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 참여실태별로 참여만족도를 비교해 볼 때 평생교육기관별로는 사회복지관 참여 집단이, 프로그램 내용별로는 한글교육과 취업교육 참여집단이, 평생학습에 참여한 동기나 목적별로는 배우는 즐거움의 동기 집단이 참여만족도가 가장 높이 나타났으며, 평생학습 참여기간에서는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 참여실태별로 한국사회적응 관계를 살펴보면 참여 평생교육기관별로는 사회복지관에 참여한 집단이, 프로그램 내용별로는 한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평생학습 참여동기나 목적별로는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집단이 각각 한국사회적응에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참여기간별로는 한국사회적응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한편,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개방의 물결과 맞물려 취업, 결혼, 유학 등으로 외국인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2016. 11.)에 따르면 국내체류 외국인의 수가 199만 9천여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된다. 또한 이 기관의 보도자료(160727)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7년에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9년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5년 내 체류 외국인 수는 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하였다.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세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수 또한 증가하여 집계 시점인 2007년에는 110,362명에서 2010년까지 계속적인 증가로 이어졌고, 2011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15년 현재 253,791명으로 2007년 대비 2.3배 증가로 이어졌다(행정자치부, 2015).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을 떠나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여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가 다른 타국에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벽을 실감하게 된다. 가장 힘든 과제인 언어소통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습의 차이, 경제적인 어려움, 차별대우, 자녀양육과 교육환경 대처에 대한 어려움 등 사회부적응에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으며 가정불화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족해체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김민정, 2010; 오미석, 정천석, 2009).

이러한 문제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2015)’의 결과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에서 언어문제가 3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외로움(34.0%), 경제적 어려움(33.3%),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23.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파악한 결과 어려움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 소외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고 아내, 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우리 이웃의 한 사람으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여 개인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속의 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들도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일상의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긍정적인 학습결과를 성취하고자 한다(사금, 2014; 황병수, 2016).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결혼이주여성의 역사는 30여 년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우리나라에 평생교육이 법제화된 1999년을 기점으로 볼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진행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한국사회의 문화에 빠르게 흡수, 대처하도록 주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한국을 많이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결혼이주여성 본연의 정체성과 미래 안착의 적응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유정, 2013; 김홍섭, 2014).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언어소통, 여가활용, 한

국 전통문화 체험, 한국 요리, 자녀 돌보기 및 직업교육 등과 같은 과정이 있다. 이 중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언어소통을 위한 한글교육 프로그램이다(사금, 2014). 한글교육 프로그램은 타국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남편과 그의 가족 또는 이웃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한국사회적응에 도움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신의현, 2010).

이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초기 정착의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정착 기간이 긴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보이고 있다(김은정, 2013; 조은희, 2011). 이에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초기 정착교육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추구를 향한 교육적 욕구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의 근본취지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이어져야 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사회적응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등의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 6대 영역(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양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 교육과 자신 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한 역동적인 교육을 희망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는 점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주목해야 하며 연구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평생교육의 참여도와 참여효과에 관한 연구(김민정, 2009; 조은희, 2011), 평생교육 참여유형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김무웅, 2008; 사금, 2014),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김갑현, 2007) 등이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적응유형과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강유미, 2008; 구차순, 2007; 정천석, 2008; 조경민, 2010), 문화적응 및 사회적응실태와 지원에 관한 연구(송미애, 신의현, 2010; 이성순, 2009; 천순녀, 2015) 등이 있다.

이 선행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초기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교육프로그램 내용이나 개선에 관한 내용 또는 한국사회의 문화적응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평생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평생학습 참여와 한국사회적응에 관련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적 특성과 평생교육 6대 영역에 포함된 평생학습 참여실태를 파악하여 한국사회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 참여실태를 살펴보고, 희망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개인적 특성 및 평생학습 참여실태별로 평생학습 참여만족도를 비교하며, 평생학습참여가 한국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국가나 사회에서 지원할 제도적 방안인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지원 및 전국 평생학습 실태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평생학습 참여실태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특성별로 한국사회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실태별로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여섯째,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실태별로 한국사회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결혼이주여성

대한민국 국민인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토에서 국경을 넘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결혼이주여성’이라고 용어를 정의한다.

나. 평생학습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제2조 1항에서 평생교육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정, 직장,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학습될 수 있

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개인의 주도적인 선택과 참여를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 6대 영역으로는 ①한글교실, 한글 인증시험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②독학사, 고입/대입 검정고시, 학점은행제 강좌 등 학력인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③취업준비, 창업관련 자격취득과정 등 취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④노래교실, 생활공예, 스포츠강좌 등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⑤문학, 상담치료, 식생활, 컴퓨터, 역사전통강좌 등 인문교양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⑥주민자치교육, 국가정책이해교육, 환경실천교육 등 시민참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다. 사회적응

사람은 태어나면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를 가리켜 사회라고 한다. 그 사회 속에서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자신을 발전시키고 상호작용하며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사회적응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인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사회적응을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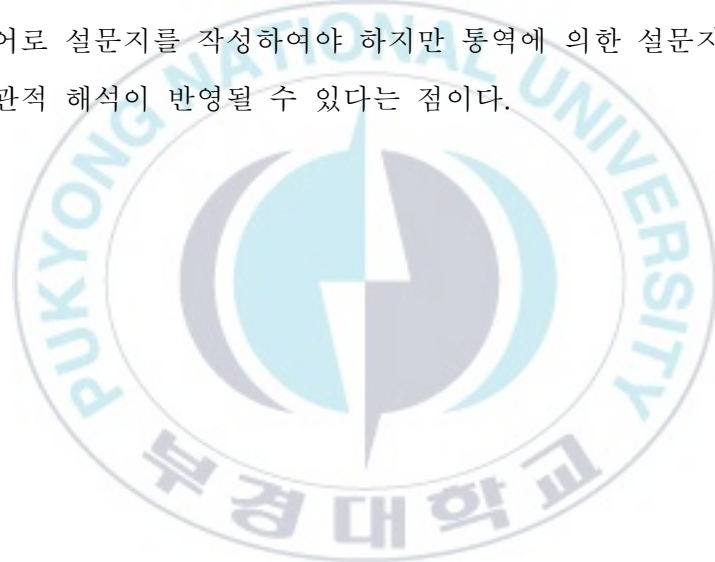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대상의 지역적인 제한점이다. 우리나라 전국의 결혼이주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야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지만 부산, 울산, 충북 등 세 지역에 한정적인 결혼이주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집

대상의 제한성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표집의 대표성을 떨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연구대상자 선정에서 참여 평생교육기관의 제한점이다.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의 특성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본 연구에서는 기타에 해당)와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참여 프로그램에 제한점이 있다.

셋째, 다중언어 해독의 제한점이다. 설문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주지역별 언어로 설문지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통역에 의한 설문지 작성은 통역자의 주관적 해석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이주여성

가. 결혼이주여성의 개념과 특성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존재하지는 않다. 다만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항의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에서 한국 사람과 혼인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남성과 여성 전체를 결혼이민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자격으로 F-6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그 자격이란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1)국민의 배우자, 2)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父) 또는 모(母)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결혼이민자 F-6 비자 자격으로 정하고 있다(김은정, 2015).

2004년 UN의 정의에서 ‘이주’는 1년 이상 개인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며, ‘이민’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태어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정착하기 위해 이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신미애, 2013). 따라서 ‘이주’는 ‘이민’보다 더 넓은 의미로, 개인이나 집단이 단기적인 체류나 영구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권 국가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황병수, 2016).

이렇게 ‘결혼이주여성’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주’ 또는 ‘이민’의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로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여성결혼이민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이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남녀가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 여성을 의미하며,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민해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 ‘여성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여성’의 용어를 함께 비교 및 활용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 자국의 영토에서 국경을 넘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결혼이주여성’이라고 용어를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결혼이주여성의 시초는 1980년대 종교 단체인 통일교 주선에 의한 국제결혼으로 처음에는 일본인 여성, 곧 이어 필리핀 여성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을 대중화시킨 계기가 되었다(김무웅, 2008). 1990년대 초 정부에서 추진한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인 ‘연변 처녀와 농촌 총각 이어주기’ 사업으로 중국 조선족 여성이 많은 증가를 보였다. 그 후 점차 취업을 위한 정착으로 연결되었고,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아시아 내의 개발도상국 여성들의 유입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 소련까지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자국에서의 삶보다 개인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향상을 위해 한국을 선택하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정착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첫째,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노동력의 이동 현상이 3D 업종 대체 노동력으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유입되어 외국

근로자와 한국인 간에 자연스러운 결혼이 이루어졌다.

둘째, 우리나라의 남아선호 사상으로 성비 불균형을 낳게 되고 결혼적령기의 남성이 결혼대상 여성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부족한 상대를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찾게 된 점이다(곽효정, 2011).

셋째, 한국 여성들의 결혼관 변화에 있다. 고학력과 경제활동 참여가 많아지면서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 적령기 남성들의 상대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넷째, 정부의 국제결혼 알선사업을 용인함에 있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여성의 유입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제결혼 알선사업을 신고제로 허용하여 국제결혼 중개소와 종교단체의 결혼 알선행위는 결혼이주여성 유입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김민정, 2010).

다섯째,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인구의 감소와 부족한 노동력의 보충을 위해 값싸고 우수한 외국의 노동력으로 유입되어 온 근로자와 한국인과의 교류를 통한 증가이다(김민정, 2010).

여섯째, 사회 경제적으로 세계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연계, 이동 및 취업 등에 의해 외국인 간의 자연스런 만남으로 이루어진 혼인 역시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는 이유가 된다.

다양한 국적, 다양한 경로로 대한민국에 정착한 초창기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적응을 위해 언어장벽, 문화적 이질감, 인권침해, 사회적 활동에의 참여부족 등 어려움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이어 나가야만 했다(김무웅, 2008).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상담해 온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해서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한국사회적응에 밑받침이 되기에 이르렀다(김갑현, 2007).

나.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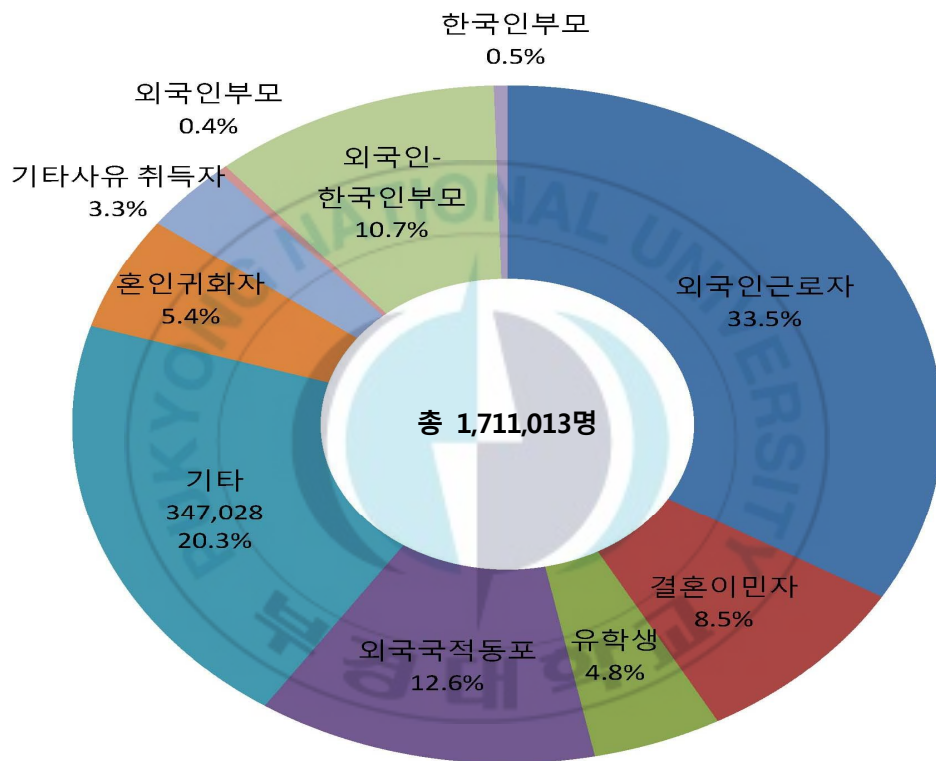
(1) 외국인 주민 현황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수는 171만 명을 넘어, 총인구 5천 1백만 명에 대비 3.4%에 해당된다. 외국인 주민수는 2006년 536,627명에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6년 주민등록상 인구 대비 외국인은 1.1%, 2015년(총인구대비) 3.4%로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표 II-1>과 같다(행자부-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2015).

<표 II-1>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자치부, 2015)

총인구		51,069,375명
총인구 대비 비율		3.4%
외국인주민 합계		1,711,013명
국적 미취득자	계	1,363,712 (79.7%)
	외국인 근로자	573,378 (33.5%)
	결혼이민자	144,912 (8.5%)
	유학생	82,181 (4.8%)
	외국국적동포	216,213 (12.6%)
	기타 외국인	347,028 (20.3%)
국적 취득자	계	149,751 (8.8%)
	혼인 귀화	93,249 (5.4%)
	기타 귀화	56,502 (3.3%)
외국인주민 자녀		197,550 (11.5%)

외국인주민의 거주 유형에서는 외국인주민 세 명 중 두 명은 근로 목적, 네 명 중 한 명은 가족형성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가족형성 목적의 거주유형은 전체의 25.5%로 나타났는데, 이 중 결혼이민자는 8.5%(144,912명), 혼인귀화자는 5.4%(92,249명)로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2) 국제결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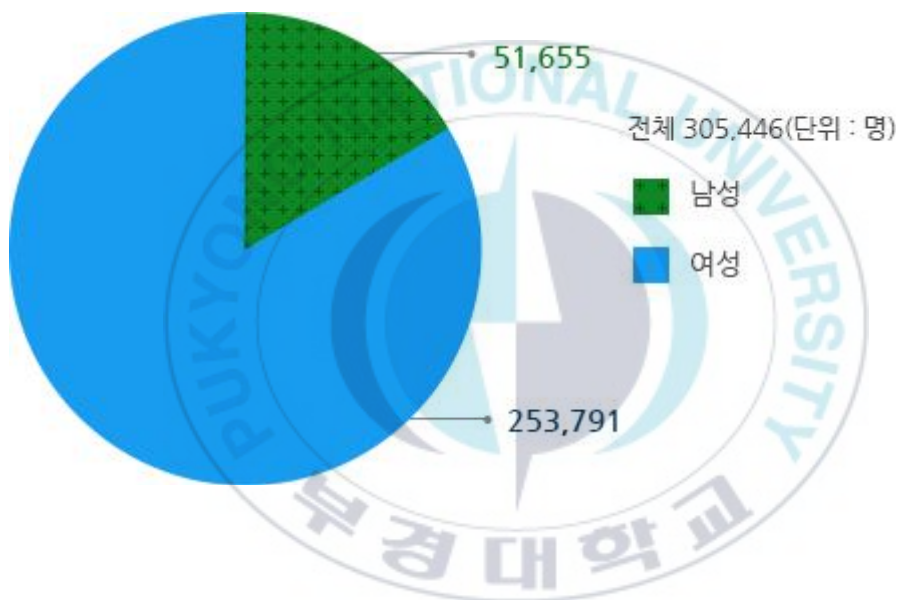
1994년 우리나라 전체 결혼 393,121건 대비 국제결혼은 6,616건(1.7%)으로 외국인 남성이 0.9%, 외국인 여성 0.8%로 국제결혼 남녀 성비가 거의 같았다가 1995년부터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5년 전체결혼 302,828건 대비 국제결혼 21,274건에서 여성과의 결혼은 14,677건으로 결혼 이주여성의 증가는 <표 II-2>와 같다(통계청, 2015).

<표 II-2> 한국인 및 외국인과의 혼인 비교(1993-2015)

연도	총 계	한국인 과의 결혼	외국인과의 혼인					
			계		한국(남)+외국(여)		한국(여)+외국(남)	
			건	비율(%)	건	비율(%)	건	비율(%)
1993	402,593	396,048	6,545	1.6	3,109	0.8	3,436	0.8
1994	393,121	386,505	6,616	1.7	3,072	0.8	3,544	0.9
1995	398,484	384,991	13,493	3.4	10,365	2.6	3,128	0.8
1996	434,911	418,964	15,947	3.7	12,647	2.9	3,300	0.8
1997	388,960	376,487	12,473	3.2	9,276	2.4	3,197	0.8
1998	373,500	361,908	11,592	3.1	7,744	2.1	3,848	1.0
1999	360,407	350,584	9,823	2.7	5,370	1.5	4,453	1.2
2000	332,090	320,485	11,605	3.5	6,945	2.1	4,660	1.4
2001	318,407	303,884	14,523	4.6	9,684	3.0	4,839	1.5
2002	304,877	289,675	15,202	5.0	10,698	3.5	4,504	1.5
2003	302,503	277,728	24,775	8.2	18,750	6.2	6,025	2.0
2004	308,598	273,958	34,640	11.2	25,105	8.1	9,535	3.1
2005	314,304	271,948	42,356	13.5	30,719	9.8	11,637	3.7
2006	330,634	291,875	38,759	11.7	29,665	9.0	9,094	2.8
2007	343,559	305,999	37,560	10.9	28,580	8.3	8,980	2.6
2008	327,715	291,511	36,204	11.0	28,163	8.6	8,041	2.5
2009	309,759	276,459	33,300	10.8	25,142	8.1	8,158	2.6
2010	326,104	291,869	34,235	10.5	26,274	8.1	7,961	2.4
2011	329,087	299,325	29,762	9.0	22,265	6.8	7,497	2.3
2012	327,073	298,748	28,325	8.7	20,637	6.3	7,688	2.4
2013	322,807	296,844	25,963	8.0	18,307	5.7	7,656	2.4
2014	305,507	282,191	23,316	7.6	16,152	5.3	7,164	2.3
2015	302,828	281,554	21,274	7.0	14,677	4.8	6,597	2.2

(3) 결혼이주여성 현황

결혼이주여성은 국적 취득자와 미취득자를 포함해서 253,791명(행정자치부, 2015. 1. 1 기준)으로 총인구수 51,069,375명 대비 0.5%이며, 외국인 주민수 1,711,013명 대비 14.8%로 [그림 II-2]와 같다(행정자치부, 2015).



[그림 II-2]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행정자치부, 2015)

결혼이주여성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은 128,718명(행정자치부, 2015. 1. 1. 기준;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국적 취득별 남·여 합계 정보를 제공하는 표)으로 전체 대비 51%에 해당되며 <표 II-3>과 같다(행정자치부, 2015).

<표 II-3> 국적취득 현황

구분	계(명)	여(명)	남(명)
계	305,446	253,791	51,655
국적 취득자	158,064	128,718	29,346
국적 미취득자	147,382	125,073	22,309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으로는 중국이 141,389명(한국계 중국인 포함) 전체 대비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베트남 58,050명(22.9%), 필리핀 16,833명(6.6%), 일본 11,814명(4.7%) 순으로 <표 II-4>와 같다(행정자치부, 2016).

<표 II-4> 출신국별 현황 (행정자치부, 2016)

구분	계(명)	여(명)	남(명)
계	305,446	253,791	51,655
중국(한국계)	98,037	73,063	24,974
중국	81,010	68,326	12,684
베트남	58,761	58,050	711
필리핀	17,353	16,833	520
일본	13,239	11,814	1,425
캄보디아	6,468	6,439	29
몽골	3,305	3,128	177
태국	3,208	3,102	106
미국	3,473	909	2,564
러시아	1,898	1,686	212
대만	3,170	2,014	1,156
기타	15,524	8,427	7,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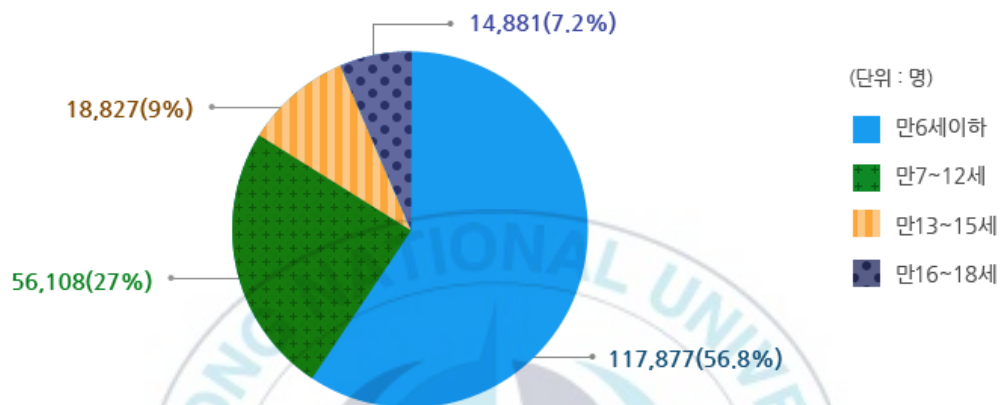
* 기타 : 인도네시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거주지역별로는 결혼이주여성 전체 253,791명 대비 경기도에 71,878명 (28.3%)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54,838명(21.6%), 인천 15,843명(6.2%), 경남 15,431명(6.1%) 순으로 <표 II-5>와 같다(행정자치부, 2015).

<표 II-5> 거주지역별 현황 (행정자치부, 2015)

구분	전체(명)	여(명)	남(명)
전국	305,446	253,791	51,655
서울	74,629	54,838	19,791
부산	11,720	10,352	1,368
대구	7,827	6,956	871
인천	19,397	15,843	3,554
광주	5,540	5,093	447
대전	5,750	5,106	644
울산	5,750	5,041	709
세종	741	667	74
경기	89,877	71,878	17,999
강원	6,697	6,276	421
충북	8,736	7,928	808
충남	14,019	12,646	1,373
전북	10,291	9,774	517
전남	11,316	10,915	401
경북	13,045	12,178	867
경남	16,836	15,431	1,405
제주	3,275	2,869	406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2015. 1. 1. 기준, 행정자치부)
 을 살펴보면 자녀수는 총 207,693명이며, 만 16세이상 18세까지 117,877명
 (56.8%)으로 가장 많은 분포로 [그림 II-3]과 같다(행정자치부, 2015).



[그림 II-3]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 현황(행정자치부, 2015)

2. 결혼이주여성과 평생학습

가.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필요성

21세기, 100세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도 평생에 걸친 학습 즉,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실태(교육부, 2010)에서 조사된 평생학습 참여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평생학습에 대한 계층 간 기회 불균형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도시화는 사회

적 갈등, 사회적 소외문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 인해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통합이 필요한 실정으로 평생학습사회라는 개념이 변화하는 오늘날의 사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활동으로 그 역할을 하면서 가족, 사회 구성원간의 소통과 함께 평생 공동체 생활을 이어나가야만 한다.

그 공동체 속의 한 영역을 자리 잡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광역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음식 교육, 한국 전통문화 체험, 생활예절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면서, 한국사회적응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높인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과 교육, 가족 외부에서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건강검진, 도우미 파견, 컴퓨터교육, 직업기술 교육, 일자리 알선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개별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관련 사업들을 연계한 종합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제공해야 한다(오미석, 2008).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평생학습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이다. 결혼해서 타국으로 이주해 온 순간부터 그 국가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생존권과 같은 것이므로 초기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며, 국가나 기초 자치단체, 복지기관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체계적인 학습으로 공동체 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의사소통을 기본 매개로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필요성에 따른 올바른 한국문화 이해와 사회적응을 위한 평생교육 6대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나. 결혼이주 여성의 평생학습 현황

각 정부부처는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증가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17개 지역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센터를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다문화교육)으로 한국어, 요리, 좋은 부모되기교육, 입학 전 부모·자녀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표 II-6>과 같다(여성가족부, 2017).

<표 II-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정책(여성가족부, 2017)

구 분	내 용
개 요	-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 -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통번역, 자녀교육 지원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와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지원내용	- 가족상담 및 교육 :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등 - 방문교육서비스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 한국어교육 : 1~4단계 - 자녀지원 : 언어(한국어)발달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자녀성장지원사업 등 - 통·번역서비스, 멘토링, 자조모임, 나눔봉사단 운영 등
신청절차 및 방법	- 지역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 또는 유선 신청 (대표번호 1577-1366)
필요서류	- 회원등록신청서 및 프로그램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문 의	- 대표전화 1577-1366 - 홈페이지 : http://liveinkorea.kr(다누리포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지역 센터 사업관리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며, 특성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환경조성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지자체 한국어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등을 지원한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에 꼭 필요한 기본정보와 다문화 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원이 13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로 365일 24시간 전화, 온라인, 방문, 면접 등으로 운영된다. 또 긴급피난시설 운영, 긴급·폭력피해 상담 및 긴급지원 연계 활동, 생활정보 제공, 생활통역 및 3자 통화 서비스, 대한변호사협회 연계 법률상담 및 가족상담 및 부부 상담을 지원한다. 다문화이해교육 홈페이지 ‘다누리배움터’는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웹과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다문화이해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대상별 온라인 다문화이해교육,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안내 및 신청(전문 강사 연계), 오프라인 개설 교육 안내 및 신청, 다문화 인식개선 및 이해교육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한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7).

법무부는 정부 3.0 보도자료(2016)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다.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이 체류허가 및 고용허가 관련 민원서비스 이용을 출입국 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3.0 협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 TF

논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서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왔지만 대상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수요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아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협업센터는 「다문화이주민+센터」라는 공동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2017년 3월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12곳의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대상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①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4곳: 충남 아산, 경기 이천, 파주, 고양), ②출입국관리사무소 활용형(2곳: 경기 양주, 인천 중구), ③지자체 외국인지원센터 활용형(6곳: 경기 안산, 수원, 남양주, 시흥, 화성, 경남 양산) 등 세 유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활용으로 기관 간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교육·상담·통번역 등의 적응지원 서비스와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가 한 곳에서 제공되면서 220만 여명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편의가 높아짐과 아울러 「다문화이주민+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중도입국학생 등의 외국인 등록정보 공유가 적극 확대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한국사회 조기적응 지원기반이 강화될 전망으로 보고되었다(법무부, 정부 3.0 보도자료, 2016).

교육부는 2015년부터 강원, 경기, 울산, 제주, 충남 등 5개 시·도 교육청에 지역「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밀착형 다문화교육 서비스제공과 모델을 확산하고, 다문화 학생에게 ‘가능한 최고의 출발 기회’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정과 학생들이 명실상부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교육부, 2014). 이러한 맥락으로 교육부 지정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표 II-7>과 같이 다문화교육 정책연구 및 정책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7).

<표 II-7> 다문화교육지원정책(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7)

주요정책	주요사업	지원 내용
정책목표	지원방향	- 유아부터 다문화학생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맞춤형 교육” 실시 - 문화다양성을 수용하는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 효율적 다문화교육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정책의연계·협력체제구축으로 맞춤형 다문화교육을 통한 교육기회평등실현 및 다문화 인재양성
맞춤형 교육	다문화유치원 시범사업 (2017, 90개원)	- 유치원 단계부터 다문화 유아에게 언어와 기초 학습을 지원하여 동등한 출발점을 보장 -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단계와 다문화적 요소 등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
	다문화 예비학교 (2017, 160학급)	-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예비학교를 운영하여, 중도입국학생·외국인학생 등의 공교육 진입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도움
	한국어 및 이중언어교육 지원	-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적응과 기초 학력 제고에 기여하고, ‘한국어’ 과목을 예비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KSL)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예비학교·중점 학교 등에 교재를 지원 - 다문화학생을 글로벌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이중언어교육지원과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중점학교 (2017, 200개교)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여, 다문화·일반 학생의 실질적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
전달체계 강화	다문화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해 통계관리 및 우수사례발굴, 컨설팅지원하고, 지역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맞춤형 다문화교육모델을 구축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의 다문화 관련 지원사업으로 ‘밝은미래’의 「다문화 자녀와의 아름다운 동행」, ‘한국다문화센터’의 「엄마나라 알리기 캠프」, ‘한국다문화가족지원연대’의 「다문화가족과의 역사문화 현장 탐방 및 멘토링 결연」, ‘아태 경제연구원’의 「탈북자,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취업교육과정」,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의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전통문화계승 강사양성과정」, ‘한국문화국제교류협회’의 「다문화·탈북가정의 자녀를 위한 서예·축구교실」, ‘차세대문화인연대’의 「2017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 및 ‘다문화종합복지센터’의 「엄마나라 바로 알기」 등을 선정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내체류 3년차 이상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1,500명을 대상으로 「전국 다문화 지도자 양성사업」이 있으며, 법무부·새마을운동중앙회와 공동으로 매년 5월 3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전국 다문화 생활체험수기 공모」 사업도 계속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7).

고용노동부는 ‘2016·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에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의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에 결혼이민자를 포함시켜 취업촉진 및 빈곤탈출 촉진을 목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훈련 기간에는 참여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고용노동부, 2016).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시행하는 ‘맞춤농업교육이수 이민여성농업인 교육’은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이민여성농업인과 전문여성농업인을 연계 1:1 맞춤 농업교육을 통한 우수 여성농업인력 양성 및 농촌정착유도를 목적으로 시행하며, 성과목표는 농촌 결혼이민여성을 농업·농촌의 단계적인 여성농업인력 양성과 정착단계에 따라 기초농업기술에 대한 실습위주의 수준별, 품목별, 개별교육을 차별화하여 지원함에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4).

각 정부 부처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 요리강습, 문화유적탐방, 전통문화체험, 생활예절교육 등 한국 사회적응에 우선적인 프로그램이 많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실시기관에 따라 <표 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김민정, 2009).

<표 II-8> 결혼이주여성 대상 프로그램

주제별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실시기관
한국생활적응 및 문화이해	한글,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강습, 생활예절교육 일상생활 적응교육 문화유적탐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문화관광부
가족관계증진	가족상담, 부부관계교육, 가족관계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적 연계 방향성 지원	친정부맺기, 여성단체와의 결연 이주여성 모임 지원	기초자치단체
친정 보내주기	고향방문 지원	기초자치단체
여성복지증진	임신, 출산, 건강교육, 건강검진 등 산후도우미, 가사도우미 파견	여성가족부
상담	일반상담, 법률상담	기초자치단체
취업	취업기술교육, 취업알선	기초자치단체
일반교육	컴퓨터, 교양취미, 자녀대상교육	기초자치단체
위안행사	장기자랑, 단합대회, 야유회, 생일잔치	기초자치단체
문화교류	풍물전시교류, 요리교류	기초자치단체
기타	폭력피해자 쉼터, 긴급생계지원 주거환경개선, 결혼식, 종교생활 교육참가자 자녀보육 서비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기초자치단체 교육부

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

가. 사회적응의 개념

적응(適應)이란 생물학적인 변화 등을 의미하는 생물학 용어와 개체가 환경에 대하여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학 용어로도 사용된다(신의현, 2010). 일반적으로 인간의 적응에 대한 개념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통합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특히 사회적 적응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화 욕구를 반영하며 사회규범, 역할인식, 윤리적 가치 등을 내포하는 것으로 사회적 활동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상의 일을 관리하는 능력에 대한 개념이다(김주원, 2009; 조정민, 2010; 재구성). 사회적응은 개인이 자신의 내적, 심리적 욕구와 외적, 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한다(변시민, 1988; 신의현, 2009; 재인용).

Berry의 적응과정은 네 가지 유형론으로 설명하는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에서 새로운 문화에 접한 사람들의 반응을 유형화하는 이론 중 이주자나 소수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이해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다(신의현, 2010). 적응이론의 논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우리나라 사회적응에 대한 논의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문화 통합형은 새로운 사회문화를 조건없이 추종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회문화와 비교하여 비판과 수용을 하면서 두 나라의 문화를 통합하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는 방식으로 적응한다. 문화 동화형은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사회문화와 새로운 우리나라의 문화를 비교하여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선택하기 보다는 스스로 우리나라 사회문화의 일부가 되는 방식으로 적응을 한다. 문화 분리형은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사회문화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며 새로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를 적극

적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문화 주변형은 구신(舊新) 문화의 어느 쪽에도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적 위치에서만 맴돌게 된다(신의현, 2010). 이러한 논의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응의 유형이 달라지겠지만 그 개인의 정체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 단체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할 때 고려된다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더욱 주도적인 학습자가 되리라 기대한다.

나.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 실태

1980년대 종교기관의 주선으로 시작된 결혼이주여성들은 점차 친구의 소개나 결혼알선업체로 인한 정착이 많은 추세에 있다(신의현, 2010). 이들 대부분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타국에서 남편을 비롯하여 그의 가족, 친지 등 인간관계에서부터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문화의 이질감 등으로 한국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야 할 만큼 힘든 역경을 지나며 한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적응의 어려움은 첫째, 언어소통의 문제이며 둘째, 결혼 생활에서의 부부갈등, 고부간의 갈등과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이며 셋째, 자신들의 이주동기인 더 나은 경제적인 삶과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어려움이다. 넷째, 위의 복합적인 어려움이 심리적 위축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지는 어려움이며 다섯째, 이웃의 무관심과 이웃 간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강경미, 2013).

이러한 문제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15)’에서도 잘 나타나 언어문제(34%), 외로움(34%), 경제적 어려움(33.3%),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23.2%) 등의 순으로 한국사회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4.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참여와 한국사회적응간의 관계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교육, 가족과 자녀 교육, 요리나 전통문화이해교육, 상담교육 등 여러 평생교육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하지 못 하는 사람을 위해 방문교육도 실시(신의현, 2010)하며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하며 자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여성가족부(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한글교육 프로그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글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한국사회적응에 자신감을 갖게 되며, 또 다른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갖게 해 준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이민자·귀화자는 2012년 대비 주관적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한국어 능력의 향상과 높아진 자신감은 평생학습 한글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결과라 보여지며, 이로 인한 공동체 생활과 함께 한국사회적응에 한 발 더 다가감으로써 문화 차이와 편견·차별로 인한 어려움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 2016).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한글교육 프로그램과 아울러 일생에 걸쳐 한국에서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참여가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 울산 및 충북 지역에 소재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각 단체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 32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450부 배부하였으나 회수된 유효한 부수는 327부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적 방법 중 임의표집방법을 적용하였다. 빈도분석결과는 <표 Ⅲ-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1> 개인적 특성 요인(N=327)

변인(요인)	항목	인원수(명)	비율(%)
지역	울산	93	28.4
	부산	99	30.3
	충북	135	41.3
연령	20대	76	23.2
	30대	162	49.5
	40대	61	18.7
	50대 이상	28	8.6
최종학력	중졸 이하	106	32.4
	고졸	146	44.6
	전문대졸	35	10.7
	대졸 이상	40	12.2
출신국	중국	81	24.8
	베트남	144	44.0
	필리핀	28	8.6
	일본	37	11.3
	기타	37	11.3

직업	주부	140	42.8
	사무·전문직	17	5.2
	공장노동자	64	19.6
	음식점 등 서비스직	49	15.0
	자영업	21	6.4
	기타	36	11.0
결혼기간	1년 미만	20	6.1
	1년~3년 미만	41	12.5
	3년~5년 미만	71	21.7
	5년~7년 미만	41	12.5
	7년~9년 미만	34	10.4
	9년~11년 미만	38	11.6
	11년 이상	82	25.1
결혼경로	종교기관	31	9.5
	결혼알선업체	147	45.0
	친구	91	27.8
	기타	58	17.7
월소득	100만원 미만	37	11.3
	100만원~300만원 미만	218	66.7
	300만원~500만원 미만	61	18.7
	500만원 이상	11	3.4
자녀유무	있다	261	79.8
	없다	66	20.2
동거가족	남편	55	16.8
	남편과 자녀	174	53.2
	시부모, 남편과 자녀	64	19.6
	시부모와 남편	13	4.0
	기타	21	6.4
한국어 사용능력	상	88	26.9
	중	195	59.6
	하	44	13.5

연구대상의 지역, 연령, 최종학력, 출신국, 직업, 결혼기간, 결혼경로, 월소득 등 개인적 특성의 요인을 살펴볼 때 먼저 지역은 충북(41.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산(30.3%), 울산(28.4%) 순이었다. 연령은 30대(49.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23.2%), 40대(18.7%), 50대 이상(8.6%)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44.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졸 이하(32.4%), 대졸 이상(12.2%), 전문대졸(10.7%) 순이었다. 출신국은 베트남(44.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24.8%), 일본(11.3%), 기타(11.3%), 필리핀(8.6%)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주부(42.8%)가 가장 많았으며, 공장노동자(19.6%), 음식점 등 서비스직(15.0%), 기타(11.0%), 자영업(6.4%), 사무·전문직(5.2%)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11년 이상(25.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5년 미만(21.7%), 1년~3년 미만과 5년~7년 미만이 각각 12.5%, 9년~11년 미만(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경로는 결혼알선업체(45.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27.8%), 기타(17.7%), 종교기관(9.5%) 순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100만원~300만원 미만(66.7%)이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500만원 미만(18.7%), 100만원 미만(11.3%), 500만원 이상(3.4%)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유무는 자녀가 '있다'가 79.8%, 자녀가 '없다'가 20.2%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은 남편과 자녀(53.2%)가 가장 많았고, 시부모와 남편과 자녀(19.2%), 남편(16.8%), 시부모와 남편(4.0%)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사용 능력은 중(59.6%)이 가장 많았으며, 상(26.9%), 하(13.5%)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설문지에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11개의 문항과 평생학습 참여특성에 관한 5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7문항, 한국사회적응 10문항,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인특성과 평생학습 참여실태 변수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 문항구성 내용은 <표 III-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2> 측정도구의 구성

변수		문항번호	문항수	출처
개인 특성	연령, 최종학력, 국적, 직업, 남편직업, 결혼기간, 결혼경로, 월 소득, 자녀유무, 동거인, 한국어 사용능력	1,2,3,4,5,6, 7,8,9,10,11	11	황병수(2016) 김무웅(2008)
평생 학습 참여 실태	참여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참여기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 평생학습 참여동기, 참여 희망 프로그램	12,13,14,15, 16	5	김무웅(2008)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17,18,19,20, 21,22,23	7	김무웅(2008)
한국사회적응		24,25,26,27, 28,29,30,31, 32,33	10	신의현(2010)

가.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평생학습 참여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무웅(2008)의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질문의 응답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자기보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생학습 참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총 7문항이며, 교육내용에 관한 문항 2문항, 교육방법에 관한 문항 2문항, 교육환경에 관한 문항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한국사회적응 정도

한국사회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신의현(2010)의 ‘한국사회적응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질문의 응답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자기보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사회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사회적응 정도에 관한 문항은 총 10문항이며 사회적활동에 관한 문항 4문항과 사회적소속감에 관한 문항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사회적응 정도를 묻는 총 10문항 전체를 역으로 환산한 점수로 구성되었다.

3.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신뢰도는 측정의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있게 측정하느냐, 즉 검사도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느냐의 문제로 측정의 오차가 크다면 신뢰성은 떨어지게 된다.

다. KR-20 공식의 변형된 형태인 Cronbach- α 값이 1에 근접할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한다(성태제, 2016).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와 한국사회적응 정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 결과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960이었고 한국사회적응 정도에 관한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954이었다.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III-3>과 <표 III-4>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3>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교육내용	2	1, 2	.924
교육방법	2	3, 4	.869
교육환경	3	5, 6, 7	.925
전체	7		.960

<표 III-4> 한국사회적응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사회적 소속감	4	8*, 9*, 10*, 11*	.919
사회적 활동	6	12*, 13*, 14*, 15*, 16*, 17*	.927
전체	10		.954

* 역채점 문항

4. 자료수집절차

가. 조사대상자의 표집 및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표집을 통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조사대상자는 울산, 부산, 충북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한 부산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복지관 및 친지들의 도움으로 울산과 충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단체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정리하면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조사대상자의 기본 정보

조사대상지역	조사대상단체	조사참여인원	전체대비
울산	3 곳	99명	28.4%
부산	5 곳	93명	30.3%
충북	3 곳	135명	41.3%
합계	11 곳	327명	100%

나.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부산, 울산,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327명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5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배포된 450부의 설문지 중 375부가 회

수되어 회수율은 83.3%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표기가 누락된 응답지 48부를 제외한 327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 회수 현황은 <표 III-6>과 같다.

<표 III-6> 설문지 회수현황

배포	회수	회수율	유효자료	유효자료율
450부	375부	83.3%	327부	72.6%

5.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회수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둘째, 평생학습 참여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적 특성별 평생학습 참여실태의 차이,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의 차이, 한국사회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또한 평생학습 참여실태별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의 차이, 한국사회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평생학습 참여실태 및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가. 평생학습 참여실태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실태는 <표 IV-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 평생교육기관은 기타(다문화가족지원센터, 36.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관(27.8%), 학교 또는 대학(11.0%), 주민자치센터(8.0%)와 문화센터(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참여기간은 1년 이상(49.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개월 미만(14.7%), 3개월~5개월 미만(14.4%)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 프로그램 내용은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7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8.3%), 기타 프로그램(6.4%),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6.1%)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는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47.4%)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배우는 것 자체가 좋아서(17.1%),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받고 싶어서(15.0%), 바람직한 배우자 및 부모가 되기 위해서(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희망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39.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24.2%),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1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 평생학습 참여실태(N=327)

변인	항목	빈도	퍼센트
평생교육기관	학교 또는 대학	36	11.0
	주민자치센터	26	8.0
	사회복지관	91	27.8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4	1.2
	문화센터(백화점, 언론기관 등)	26	8.0
	지방자치단체	6	1.8
	여성단체	20	6.1
	기타(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8	36.1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	3개월 미만	48	14.7
	3개월~5개월 미만	47	14.4
	5개월~7개월 미만	21	6.4
	7개월~9개월 미만	20	6.1
	9개월~11개월 미만	18	5.5
	1년 이상	161	49.2
	기타	12	3.7
평생학습 프로그램내용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242	74.0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	4	1.2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	20	6.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7	2.1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27	8.3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6	1.8
	기타	21	6.4
평생학습 참여동기나 목적	배우는 것 자체가 좋아서	56	17.1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하여	7	2.1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7	2.1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받고 싶어서	49	15.0
	바람직한 배우자 및 부모가 되기 위해서	35	10.7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	155	47.4
	기타	18	5.5
희망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79	24.2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	5	1.5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	128	39.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9	8.9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48	14.7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17	5.2
	기타	21	6.4

나.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와 한국사회적응의 기술통계는 <표 IV-2>와 같다. 결혼이주여성 327명 응답자들의 평생학습 참여만족도는 평균 3.80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 교육내용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응 영역에서도 평균 2.96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활동, 사회적 소속감 영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변인명	하위변인명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교육내용	327	1	5	3.83	.901
	교육방법	327	1	5	3.79	.895
	교육환경	327	1	5	3.78	.906
	전체	327	1	5	3.80	.858
한국사회적응	사회적소속감	327	1	5	2.94	.945
	사회적활동	327	1	5	2.98	.899
	전체	327	1	5	2.96	.889

2. 개인적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실태 차이

가. 지역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실태의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실태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 평생교육기관의 지역대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울산과 충북은 기타(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관이 가장 높았고 부산은 사회복지관 참여가 가장 높았다. 분석결과는 <표 IV-3>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3> 지역별 참여 평생교육기관 차이

구분		참여인원	울산	부산	충북	카이제곱
평생 교육 기관	학교 또는 대학	인원수	2	30	4	103.477***
		백분율(%)	2.2	30.3	3.0	
	주민자치센터	인원수	15	3	8	
		백분율(%)	16.1	3.0	5.9	
	사회복지관	인원수	27	32	32	
		백분율(%)	29.0	32.3	23.7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인원수	0	2	2	
		백분율(%)	0.0	2.0	1.5	
	문화센터	인원수	4	11	11	
		백분율(%)	4.3	11.1	8.1	
	지방자치단체	인원수	0	0	6	
		백분율(%)	0.0	0.0	4.4	
	여성단체	인원수	2	0	18	
		백분율(%)	2.2	0.0	13.3	
	기타	인원수	43	21	54	
		백분율(%)	46.2	21.2	40.0	
합계		인원수	93	99	135	

*** p<.001

지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지역에서 참여기간이 1년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에서 특히 비율이 높았다. 분석결과는 <표 IV-4>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4> 지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 차이

구분		참여인원	울산	부산	충북	카이제곱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	3개월 미만	인원수	21	7	20	30.444**
		백분율(%)	22.6	7.1	14.8	
	3~5개월	인원수	15	10	22	
		백분율(%)	16.1	10.1	16.3	
	5~7개월	인원수	7	3	11	
		백분율(%)	7.5	3.0	8.1	
	7~9개월	인원수	10	3	7	
		백분율(%)	10.8	3.0	5.2	
	9~11개월	인원수	3	9	6	
		백분율(%)	3.2	9.1	4.4	
	1년 이상	인원수	36	60	65	
		백분율(%)	38.7	60.6	48.1	
	기타	인원수	1	7	4	
		백분율(%)	1.1	7.1	3.0	
합계		인원수	93	99	135	

**p<.01

지역별 참여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 차이를 나타낸 <표 IV-5>를 보면 전 지역에서 한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울산은 기타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았고, 부산은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높았다. 한편 충북은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지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 차이

구분		참여인원	울산	부산	충북	카이제곱
프 로 그 램 내 용	한글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75	78	89	45.931***
		백분율(%)	80.6	78.8	65.9	
	학력인정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0	1	3	
		백분율(%)	0.0	1.0	2.2	
	취업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1	12	7	
		백분율(%)	1.1	12.1	5.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0	1	6	
		백분율(%)	0.0	1.0	4.4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5	2	20	
		백분율(%)	5.4	2.0	14.8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0	1	5	
		백분율(%)	0.0	1.0	3.7	
	기타	인원수	12	4	5	
		백분율(%)	12.9	4.0	3.7	
합계		인원수	93	99	135	

*** p<.001

지역별 평생학습을 참여하는 동기나 목적의 비율을 나타낸 <표 IV-6>을 보면 전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울산의 경우 큰 비율의 인원이 배우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산은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충북은 배우는 즐거움과 자격증 및 취업을 목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지역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나 목적 차이

구분		참여인원	울산	부산	충북	카이제곱
평생 학습 참여 동기 목적	배우는 즐거움	인원수	15	13	28	32.070**
		백분율(%)	16.1	13.1	20.7	
	여가시간의 활용	인원수	1	2	4	
		백분율(%)	1.1	2.0	3.0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인원수	2	1	4	
		백분율(%)	2.2	1.0	3.0	
	자격증 및 취업	인원수	8	13	28	
		백분율(%)	8.6	13.1	20.7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해	인원수	10	15	10	
		백분율(%)	10.8	15.2	7.4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	인원수	44	54	57	
		백분율(%)	47.3	54.5	42.2	
	기타	인원수	13	1	4	
		백분율(%)	14.0	1.0	3.0	
합계		개수	93	99	135	

**p<.01

지역별로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비교한 <표 IV-7>을 보면 전 지역에서 취업교육 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한글교육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한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도 많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앞으로의 취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표 IV-7> 지역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차이

구분		참여인원	울산	부산	충북	카이제곱
참여 하고 싶은 평생 학습 프로 그램	한글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15	36	28	66.373***
		백분율(%)	16.1	36.4	20.7	
	학력인정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1	2	2	
		백분율(%)	1.1	2.0	1.5	
	취업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51	36	41	
		백분율(%)	54.8	36.4	30.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9	4	16	
		백분율(%)	9.7	4.0	11.9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2	13	33	
		백분율(%)	2.2	13.1	24.4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1	3	13	
		백분율(%)	1.1	3.0	9.6	
	기타	인원수	14	5	2	
		백분율(%)	15.1	5.1	1.5	
합계		인원수	93	99	135	

***p<.001

나. 연령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실태의 차이

연령별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교차분석을 나타낸 <표 IV-8>을 보면 연령대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골고루 많은 비율의 인원은 기타(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관에서 평생학습을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복지관에서 많은 참여율을 보인다. 그러나 40대의 경우 여성단체에서 평생학습을 참여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8> 연령별 참여 평생교육기관 차이

구분		참여인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카이제곱
평생 교육 기관	학교 또는 대학	인원수	14	11	10	1	50.536***
		백분율(%)	18.4	6.8	16.4	3.6	
	주민자치센터	인원수	5	11	6	4	
		백분율(%)	6.6	6.8	9.8	14.3	
	사회복지관	인원수	19	48	16	8	
		백분율(%)	25.0	29.6	26.2	28.6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인원수	0	1	2	1	
		백분율(%)	0.0	0.6	3.3	3.6	
	문화센터	인원수	8	13	2	3	
		백분율(%)	10.5	8.0	3.3	10.7	
	지방자치단체	인원수	1	1	3	1	
		백분율(%)	1.3	0.6	4.9	3.6	
	여성단체	인원수	1	7	11	1	
		백분율(%)	1.3	4.3	18.0	3.6	
	기타	인원수	28	70	11	9	
		백분율(%)	36.8	43.2	18.0	32.1	
합계		인원수	76	162	61	28	

***p<.001

연령별 참여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을 나타낸 <표 IV-9>를 보면 연령대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50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1년 이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IV-9> 연령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 차이

구분		참여인원	20대	30대	40대	50대	카이제곱
평생 학습 프로 그램 참여 기간	3개월미만	인원수	10	23	8	6	30.925*
		백분율(%)	13.2	14.2	13.1	24.0	
	3~5개월	인원수	6	29	9	3	
		백분율(%)	7.9	17.9	14.8	12.0	
	5~7개월	인원수	3	9	7	2	
		백분율(%)	3.9	5.6	11.5	8.0%	
	7~9개월	인원수	3	8	6	3	
		백분율(%)	3.9	4.9	9.8	12.0	
	9~11개월	인원수	8	5	1	3	
		백분율(%)	10.5	3.1	1.6	12.0	
	1년 이상	인원수	45	81	28	6	
		백분율(%)	59.2	50.0	45.9	24.0	
	기타	인원수	1	6	2	2	
		백분율(%)	1.3	3.7	3.3	8.0	
합계		인원수	76	162	61	25	

*p<.05

연령별 참여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 차이를 나타낸 <표 IV-10>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한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울산은 기타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았고, 부산은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높았다. 한편 충북은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연령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 차이

분		참여인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카이제곱
프로그램 내용	한글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68	124	38	12	37.309**
		백분율(%)	89.5	76.5	62.3	42.9	
	학력인정 교육프로그램	인원수	0	2	1	1	
		백분율(%)	0.0	1.2	1.6	3.6	
	취업 교육프로그램	인원수	4	5	7	4	
		백분율(%)	5.3	3.1	11.5	14.3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인원수	0	4	2	1	
		백분율(%)	0.0	2.5	3.3	3.6	
	인문교양 교육프로그램	인원수	1	13	7	6	
		백분율(%)	1.3	8.0	11.5	21.4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	인원수	1	3	2	0	
		백분율(%)	1.3	1.9	3.3	0.0	
	기타	인원수	2	11	4	4	
		백분율(%)	2.6	6.8	6.6	14.3	
합계		인원수	76	162	61	28	

**p<.01

연령별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나 목적의 비율을 나타낸 <표 IV-11>를 보면 대다수의 연령별 인원이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0대의 경우 큰 비율의 인원이 배우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1> 연령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나 목적 차이

구분		참여인원	울산	부산	충북	카이제곱
평생 학습 참여 동기 목적	배우는 즐거움	인원수	15	13	28	32.070**
		백분율(%)	16.1	13.1	20.7	
	여가시간의 활용	인원수	1	2	4	
		백분율(%)	1.1	2.0	3.0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인원수	2	1	4	
		백분율(%)	2.2	1.0	3.0	
	자격증 및 취업	인원수	8	13	28	
		백분율(%)	8.6	13.1	20.7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해	인원수	10	15	10	
		백분율(%)	10.8	15.2	7.4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	인원수	44	54	57	
		백분율(%)	47.3	54.5	42.2	
	기타	인원수	13	1	4	
		백분율(%)	14.0	1.0	3.0	
합계		인원수	93	99	135	

**p<.01

연령별로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비교한 <표 IV-12>를 보면 한글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취업교육 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미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IV-12> 연령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차이

구분		참여인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카이제곱
참여하고 싶은 평생 학습 프로그램	한글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22	38	17	2	29.576*
		백분율(%)	28.9	23.5	27.9	7.1	
	학력인정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3	1	0	1	
		백분율(%)	3.9	0.6	0.0	3.6	
	취업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30	67	23	8	
		백분율(%)	39.5	41.4	37.7	28.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5	15	4	5	
		백분율(%)	6.6	9.3	6.6	17.9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10	20	13	5	
		백분율(%)	13.2	12.3	21.3	17.9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3	7	2	5	
		백분율(%)	3.9	4.3	3.3	17.9	
	기타	인원수	3	14	2	2	
		백분율(%)	3.9	8.6	3.3	7.1	
합계		인원수	76	162	61	28	

*p<.05

다. 최종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실태의 차이

최종학력에 따라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교차분석을 나타낸 <표 IV-13>을 보면 고졸인 경우 사회복지관에서 많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졸이하,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기타(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관에 많이 참여함을 알 수 있다.

<표 IV-13> 최종학력별 참여 평생교육기관 차이

구분		참여인원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	대졸 이상	카이제곱
평생 교육 기관	학교 또는 대학	인원수	7	20	3	6	66.155***
		백분율(%)	6.6	13.7	8.6	15.0	
	주민자치 센터	인원수	5	18	2	1	
		백분율(%)	4.7	12.3	5.7	2.5	
	사회복지 관	인원수	29	46	6	10	
		백분율(%)	27.4	31.5	17.1	25.0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인원수	0	0	1	3	
		백분율(%)	0.0	0.0	2.9	7.5	
	문화센터	인원수	5	13	3	5	
		백분율(%)	4.7	8.9	8.6	12.5	
	지방자치 단체	인원수	2	3	0	1	
		백분율(%)	1.9	2.1	0.0	2.5	
	여성단체	인원수	5	5	9	1	
		백분율(%)	4.7	3.4	25.7	2.5	
	기타	인원수	53	41	11	13	
		백분율(%)	50.0	28.1	31.4	32.5	
합계		인원수	106	146	35	40	

***p<.001

최종학력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의 교차분석을 나타낸 <표 IV-14>를 보면 1년 이상 참여한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5개월 미만의 인원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14> 최종학력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 차이

구분		참여인원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	대졸 이상	카이제곱
평생 학습 프로 그램 참여 기간	3개월 미만	인원수	24	12	6	6	31.394*
		백분율(%)	22.6	8.2	17.1	15.0	
	3~5개월	인원수	19	17	2	9	
		백분율(%)	17.9	11.6	5.7	22.5	
	5~7개월	인원수	5	10	4	2	
		백분율(%)	4.7	6.8	11.4	5.0	
	7~9개월	인원수	2	15	2	1	
		백분율(%)	1.9	10.3	5.7	2.5	
	9~11개월	인원수	7	8	3	0	
		백분율(%)	6.6	5.5	8.6	0.0	
	1년 이상	인원수	46	77	16	22	
		백분율(%)	43.4	52.7	45.7	55.0	
	기타	인원수	3	7	2	0	
		백분율(%)	2.8	4.8	5.7	0.0	
합계		인원수	106	146	35	40	

*p<.05

최종학력별로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의 교차분석을 나타낸 <표 IV-15>를 보면 모든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대다수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전문대졸, 대졸이상인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은 조금 낮으나 인문교육, 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15> 최종학력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 차이

구분		참여인원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	대졸 이상	카이제곱
프로그램 내용	한글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86	117	15	24	68.661***
		백분율(%)	81.1	80.1	42.9	60.0	
	학력인정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1	3	0	0	
		백분율(%)	9	2.1	0.0	0.0	
	취업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1	7	3	9	
		백분율(%)	.9	4.8	8.6	22.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0	3	2	2	
		백분율(%)	0.0	2.1	5.7	5.0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6	7	11	3	
		백분율(%)	5.7	4.8	31.4	7.5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3	2	0	1	
		백분율(%)	2.8	1.4	0.0	2.5	
	기타	인원수	9	7	4	1	
		백분율(%)	8.5	4.8	11.4	2.5	
합계		인원수	106	146	35	40	

*** p<.001

최종학력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나 목적의 교차분석을 나타낸 <표 IV-16>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은 자격증 및 취업의 목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표 IV-16> 최종학력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나 목적 차이

구분		참여인원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카이제곱
평생 학습 참여 동기 목적	배우는 즐거움	인원수	14	30	6	6	55.904***
		백분율(%)	13.2	20.5	17.1	15.0	
	여가시간의 활용	인원수	0	2	0	5	
		백분율(%)	0.0	1.4	0.0	12.5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인원수	3	3	1	0	
		백분율(%)	2.8	2.1	2.9	0.0	
	자격증 및 취업	인원수	7	21	10	11	
		백분율(%)	6.6	14.4	28.6	27.5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해	인원수	12	16	5	2	
		백분율(%)	11.3	11.0	14.3	5.0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	인원수	59	70	10	16	
		백분율(%)	55.7	47.9	28.6	40.0	
	기타	인원수	11	4	3	0	
		백분율(%)	10.4	2.7	8.6	0.0	
합계		인원수	106	146	35	40	

***p<.001

최종학력별로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교차분석을 나타낸 <표 IV-17>을 보면 전체적으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기를 원했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은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했음이 나타났다.

<표 IV-17> 최종학력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차이

구분		참여인원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	대졸 이상	카이 제곱
참여 하고 싶은 평생 학습 프로 그램	한글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30	37	5	7	45.242***
		백분율(%)	28.3	25.3	14.3	17.5	
	학력인정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0	4	0	1	
		백분율(%)	0.0	2.7	0.0	2.5	
	취업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39	59	11	19	
		백분율(%)	36.8	40.4	31.4	47.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11	15	3	0	
		백분율(%)	10.4	10.3	8.6	0.0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7	19	12	10	
		백분율(%)	6.6	13.0	34.3	25.0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4	8	3	2	
		백분율(%)	3.8	5.5	8.6	5.0	
	기타	인원수	15	4	1	1	
		백분율(%)	14.2	2.7	2.9	2.5	
합계		인원수	106	146	35	40	

*** p<.001

라. 한국어 사용능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실태의 차이

한국어사용능력별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의 교차분석을 나타낸 <표 IV-18>을 보면 한국어사용능력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사용능력이 ‘상’이라 응답한 인원 중에는 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았고, ‘중’과 ‘하’는 기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관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표 IV-18> 한국어사용능력별 참여 평생교육기관 차이

구분		참여인원	상	중	하	카이제곱
평생 교육 기관	학교 또는 대학	인원수	13	23	0	38.829**
		백분율(%)	14.8	11.8	0.0	
	주민자치센터	인원수	7	18	1	
		백분율(%)	8.0	9.2	2.3	
	사회복지관	인원수	32	49	10	
		백분율(%)	36.4	25.1	22.7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인원수	2	2	0	
		백분율(%)	2.3	1.0	0.0	
	문화센터	인원수	5	21	0	
		백분율(%)	5.7	10.8	0.0	
	지방자치단체	인원수	1	3	2	
		백분율(%)	1.1	1.5	4.5	
	여성단체	인원수	6	10	4	
		백분율(%)	6.8	5.1	9.1	
	기타	인원수	22	69	27	
		백분율(%)	25.0	35.4	61.4	
합계		인원수	88	195	44	

**p<.01

한국어사용능력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을 나타낸 <표 IV-19>를 보면 한국어사용능력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집단에서 참여기간이 1년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이 ‘상’과 ‘하’ 집단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V-19> 한국어사용능력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 차이

구분		참여인원	상	중	하	카이제곱
평생 학습 프로 그램 참여 기간	3개월 미만	인원수	17	16	15	29.818**
		백분율(%)	19.3	8.2	34.1	
	3~5개월	인원수	12	28	7	
		백분율(%)	13.6	14.4	15.9	
	5~7개월	인원수	3	15	3	
		백분율(%)	3.4	7.7	6.8	
	7~9개월	인원수	5	13	2	
		백분율(%)	5.7	6.7	4.5	
	9~11개월	인원수	6	9	3	
		백분율(%)	6.8	4.6	6.8	
	1년 이상	인원수	39	108	14	
		백분율(%)	44.3	55.4	31.8	
	기타	인원수	6	6	0	
		백분율(%)	6.8	3.1	0.0	
합계		인원수	88	195	44	

**p<.01

한국어사용능력별 참여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 차이를 나타낸 <표 IV-20>을 보면 모든 집단에서 한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상’ 집단은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았고, ‘중’ 집단은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이 높았다. 한편 ‘하’ 집단은 기타 프로그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한국어사용능력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 차이

구분		참여인원	상	중	하	카이제곱
평 생 학 습 프 로 그 램 내 용	한글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50	157	35	36.027***
		백분율(%)	56.8	80.5	79.5	
	학력인정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2	2	0	
		백분율(%)	2.3	1.0	0.0	
	취업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14	6	0	
		백분율(%)	15.9	3.1	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3	4	0	
		백분율(%)	3.4	2.1	0.0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11	14	2	
		백분율(%)	12.5	7.2	4.5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1	4	1	
		백분율(%)	1.1	2.1	2.3	
	기타	인원수	7	8	6	
		백분율(%)	8.0	4.1	13.6	
합계		인원수	88	195	44	

*** p<.001

한국어사용능력별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동기나 목적의 비율을 나타낸 <표 IV-21>을 보면 전 집단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자격증 및 취업을 목적으로, 배우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1> 한국어사용능력별 평생학습 참여동기나 목적 차이

구분		참여인원	상	중	하	카이제곱
평생 학습 참여 동기 목적	배우는 즐거움	인원수	19	31	6	61.300***
		백분율(%)	21.6	15.9	13.6	
	여가시간의 활용	인원수	7	0	0	
		백분율(%)	8.0	0.0	0.0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인원수	2	3	2	
		백분율(%)	2.3	1.5	4.5	
	자격증 및 취업	인원수	25	23	1	
		백분율(%)	28.4	11.8	2.3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해	인원수	4	22	9	
		백분율(%)	4.5	11.3	20.5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	인원수	26	109	20	
		백분율(%)	29.5	55.9	45.5	
	기타	인원수	5	7	6	
		백분율(%)	5.7	3.6	13.6	
합계		인원수	88	195	44	

***p<.001

한국어사용능력별로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비교한 <표 IV-22>를 보면 전 집단에서 취업교육 프로그램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상’ 집단은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중’ 집단과 ‘하’ 집단은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한국어사용능력별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차이

구분		참여인원	상	중	하	카이제곱
참여 하고 싶은 평생 학습 프로 그램	한글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11	58	10	33.351**
		백분율(%)	12.5	29.7	22.7	
	학력인정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1	4	0	
		백분율(%)	1.1	2.1	0.0	
	취업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35	71	22	
		백분율(%)	39.8	36.4	50.0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10	15	4	
		백분율(%)	11.4	7.7	9.1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19	28	1	
		백분율(%)	21.6	14.4	2.3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인원수	9	8	0	
		백분율(%)	10.2	4.1	0.0	
	기타	인원수	3	11	7	
		백분율(%)	3.4	5.6	15.9	
합계		인원수	88	195	44	

**p<.01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가. 지역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IV-23>에 제시하였다.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모두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부산지역이 울산과 충북지역보다 평생학습 참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지역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구분	지역	인원수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교육내용	울산 ^a	93	3.62	.697	13.182***	b>a, c
	부산 ^b	99	4.20	.832		
	충북 ^c	135	3.70	.993		
	합계	327	3.83	.901		
	울산 ^a	93	3.59	.686		
교육방법	부산 ^b	99	4.18	.822	14.370***	b>a, c
	충북 ^c	135	3.65	.985		
	합계	327	3.79	.895		
	울산 ^a	93	3.54	.678		
	부산 ^b	99	4.21	.819		
교육환경	충북 ^c	135	3.63	.995	18.113***	b>a, c
	합계	327	3.78	.906		
	울산 ^a	93	3.58	.655		
	부산 ^b	99	4.20	.774		
	충북 ^c	135	3.66	.944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합계	327	3.80	.858	16.817***	b>a, c

p<.01, *p<.001

나. 연령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연령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IV-24>에 제시하였다.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서 모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20대가 30대와 40대에 비해 평생학습 참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연령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구분	연령대	인원수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교육내용	20대 ^a	76	4.17	.827	5.161**	a>b, c
	30대 ^b	162	3.73	.880		
	40대 ^c	61	3.73	1.002		
	50대 이상 ^d	28	3.63	.777		
	합계	327	3.83	.901		
교육방법	20대 ^a	76	4.13	.806	4.944**	a>b, c
	30대 ^b	162	3.70	.871		
	40대 ^c	61	3.68	1.029		
	50대 이상 ^d	28	3.66	.746		
	합계	327	3.79	.895		
교육환경	20대 ^a	76	4.17	.793	6.295***	a>b, c
	30대 ^b	162	3.67	.885		
	40대 ^c	61	3.66	1.039		
	50대 이상 ^d	28	3.63	.739		
	합계	327	3.78	.906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20대 ^a	76	4.16	.767	6.014**	a>b, c
	30대 ^b	162	3.70	.836		
	40대 ^c	61	3.69	.978		
	50대 이상 ^d	28	3.64	.705		
	합계	327	3.80	.858		

*** p<.001

다. 최종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최종학력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IV-25>와 같다.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영역,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서는 대졸 이상 집단이 전문대졸 집단보다 참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환경 영역에서는 사후분석결과 집단 간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다.

<표 IV-25> 최종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구분	최종학력	인원수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교육내용	중졸 이하 ^a	106	3.83	.836	4.877**	d>c
	고졸 ^b	146	3.84	.851		
	전문대졸 ^c	35	3.37	1.245		
	대졸 이상 ^d	40	4.15	.753		
	합계	327	3.83	.901		
교육방법	중졸 이하 ^a	106	3.76	.854	3.045*	d>c
	고졸 ^b	146	3.83	.819		
	전문대졸 ^c	35	3.44	1.265		
	대졸 이상 ^d	40	4.05	.807		
	합계	327	3.79	.895		
교육환경	중졸 이하 ^a	106	3.71	.871	2.827*	n.s
	고졸 ^b	146	3.84	.848		
	전문대졸 ^c	35	3.48	1.253		
	대졸 이상 ^d	40	4.03	.773		
	합계	327	3.78	.906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중졸 이하 ^a	106	3.77	.819	3.780*	d>c
	고졸 ^b	146	3.83	.792		
	전문대졸 ^c	35	3.43	1.216		
	대졸 이상 ^d	40	4.08	.722		
	합계	327	3.80	.858		

*p<.05, **p<.01

라. 결혼기간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기간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IV-26>에 제시하였다.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사후분석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6> 결혼기간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구 분	결혼기간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교육내용	1년 미만 ^a	20	4.28	.80	2.992**	n.s
	1년~3년 미만 ^b	41	4.12	.87		
	3년~5년 미만 ^c	71	3.81	.77		
	5년~7년 미만 ^d	41	3.82	.82		
	7년~9년 미만 ^e	34	3.97	.78		
	9년~11년 미만 ^f	38	3.51	1.05		
	11년 이상 ^g	82	3.67	.99		
	합계	327	3.83	.90		
교육방법	1년 미만 ^a	20	4.30	.83	3.801**	n.s
	1년~3년 미만 ^b	41	4.09	.79		
	3년~5년 미만 ^c	71	3.66	.80		
	5년~7년 미만 ^d	41	3.77	.75		
	7년~9년 미만 ^e	34	4.07	.75		
	9년~11년 미만 ^f	38	3.49	1.04		
	11년 이상 ^g	82	3.67	.99		
	합계	327	3.79	.89		
교육환경	1년 미만 ^a	20	4.23	.79	3.371**	n.s
	1년~3년 미만 ^b	41	4.10	.83		
	3년~5년 미만 ^c	71	3.60	.81		
	5년~7년 미만 ^d	41	3.77	.76		
	7년~9년 미만 ^e	34	4.03	.81		
	9년~11년 미만 ^f	38	3.52	1.04		
	11년 이상 ^g	82	3.69	1.00		
	합계	327	3.78	.91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1년 미만 ^a	20	4.27	.79	3.609**	n.s
	1년~3년 미만 ^b	41	4.10	.78		
	3년~5년 미만 ^c	71	3.69	.73		
	5년~7년 미만 ^d	41	3.79	.73		
	7년~9년 미만 ^e	34	4.02	.70		
	9년~11년 미만 ^f	38	3.51	1.02		
	11년 이상 ^g	82	3.68	.97		
	합계	327	3.80	.86		

**p<.01

마. 가정소득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소득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IV-27>에 제시하였다.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영역, 평생교육 참여만족도에서 가정소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교육환경 영역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분석결과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7> 가정소득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구분	가정 소득	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교육내용	100만원 미만 ^a	37	4.15	.807	2.975*	n.s
	100만원~300만원 ^b	218	3.76	.929		
	300만원~500만원 ^c	61	3.79	.829		
	500만원 이상 ^d	11	4.27	.754		
	합계	327	3.83	.901		
	100만원 미만 ^a	37	4.15	.824	3.232*	n.s
교육방법	100만원~300만원 ^b	218	3.74	.941		
	300만원~500만원 ^c	61	3.69	.714		
	500만원 이상 ^d	11	4.18	.783		
	합계	327	3.79	.895		

교육환경	100만원 미만 ^a	37	4.05	.901	2.378	n.s
	100만원~300만원 ^b	218	3.71	.936		
	300만원~500만원 ^c	61	3.78	.755		
	500만원 이상 ^d	11	4.21	.910		
	합계	327	3.78	.906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100만원 미만 ^a	37	4.12	.780	3.075*	n.s
	100만원~300만원 ^b	218	3.74	.905		
	300만원~500만원 ^c	61	3.75	.683		
	500만원 이상 ^d	11	4.22	.775		
	합계	327	3.80	.858		

*p<.05

바. 한국어 사용능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의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사용능력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IV-28>에 제시하였다.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 모든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서 한국어 사용능력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IV-28> 한국어 사용능력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구분	한국어 사용능력	인원수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교육내용	상	88	3.90	.837	.712	-
	중	195	3.78	.965		
	하	44	3.89	.714		
	합계	327	3.83	.901		
교육방법	상	88	3.88	.894	.881	-
	중	195	3.74	.931		
	하	44	3.85	.712		
	합계	327	3.79	.895		
교육환경	상	88	3.86	.894	.728	-
	중	195	3.73	.941		
	하	44	3.83	.762		
	합계	327	3.78	.906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상	88	3.88	.839	.849	-
	중	195	3.75	.900		
	하	44	3.86	.693		
	합계	327	3.80	.858		

개인적 특성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연령별, 최종학력별, 결혼기간별, 가정소득별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사용능력에 따른 참여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를 볼 때 한국어 사용능력이 평생학습의 참여만족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교육환경 부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항목들이 많은 점으로 보면, 교육환경은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4.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가. 지역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에 따라 한국사회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IV-29>에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 활동, 사회적 소속감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사회적 활동, 사회적 소속감 영역 모두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부산지역이 울산과 충북지역보다 사회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지역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구분	지역	인원수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사회적 활동	울산 ^a	93	3.62	.697	13.182***	b>a, c
	부산 ^b	99	4.20	.832		
	충북 ^c	135	3.70	.993		
	합계	327	3.83	.901		
사회적 소속감	울산 ^a	93	3.59	.686	14.370***	b>a, c
	부산 ^b	99	4.18	.822		
	충북 ^c	135	3.65	.985		
	합계	327	3.79	.895		
사회적응	울산 ^a	93	3.54	.678	18.113***	b>a, c
	부산 ^b	99	4.21	.819		
	충북 ^c	135	3.63	.995		
	합계	327	3.78	.906		

***p<.001

나. 연령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연령에 따라 사회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표 IV-30>과 같다. 사회적응은 사회적 활동 영역과 사회적 소속감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사회적 활동, 사회적 소속감, 사회적응 모두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40대와 50대가 각각 20대보다 사회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 연령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구분	연령	인원수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사회적 활동	20대 ^a	76	2.60	1.074	7.857***	c>a d>a
	30대 ^b	162	2.92	.852		
	40대 ^c	61	3.29	.890		
	50대 이상 ^d	28	3.29	.863		
	합계	327	2.94	.945		
사회적 소속감	20대 ^a	76	2.61	1.047	7.928***	c>a d>a
	30대 ^b	162	2.99	.809		
	40대 ^c	61	3.19	.815		
	50대 이상 ^d	28	3.40	.822		
	합계	327	2.98	.899		
사회 적응	20대 ^a	76	2.60	1.047	8.354***	c>a d>a
	30대 ^b	162	2.96	.790		
	40대 ^c	61	3.24	.803		
	50대 이상 ^d	28	3.34	.803		
	합계	327	2.96	.889		

***p<.001

다.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최종학력에 따라 사회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표 IV-31>과 같다. 사회적응은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소속감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사회적 활동, 사회적 소속감, 사회적응 모두 최종학력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사회적 활동은 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보다 사회적응 정도가 높았고, 사회적 소속감은 전문대졸이 중졸 이하보다 높았다. 그리고 사회적응 전체는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이 각각 중졸 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최종학력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구 분	최종 학력 중졸 이하 ^a	인원수 106	평균 2.71	표준 편차 .939	F	Scheffe
사회적 활동	고졸 ^b	146	2.99	.937	4.463**	d>a
	전문대졸 ^c	35	3.13	.834		
	대졸 이상 ^d	40	3.26	.956		
	총계	327	2.94	.945		
	중졸 이하 ^a	106	2.74	.935		
사회적 소속감	고졸 ^b	146	3.03	.912	4.644**	c>a
	전문대졸 ^c	35	3.28	.810		
	대졸 이상 ^d	40	3.14	.681		
	총계	327	2.98	.899		
	중졸 이하 ^a	106	2.72	.915		
사회 적응	고졸 ^b	146	3.01	.897	4.743**	c>a d>a
	전문대졸 ^c	35	3.20	.762		
	대졸 이상 ^d	40	3.20	.756		
	총계	327	2.96	.889		
	중졸 이하 ^a	106	2.72	.915		

**p<.01

라. 결혼기간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기간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IV-32>와 같다. 사회적응은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소속감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이 결혼기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사회적 활동은 결혼기간이 7년 이상 집단이, 사회적 소속감은 11년 이상 집단이 사회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기간이 길수록 사회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2> 결혼기간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구분	결혼기간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사회적 활동	1년 미만 ^a	20	2.39	1.289	7.160***	e>a, b g>a, b
	1년 ~ 3년 미만 ^b	41	2.40	.970		
	3년 ~ 5년 미만 ^c	71	2.79	.696		
	5년 ~ 7년 미만 ^d	41	3.03	.783		
	7년 ~ 9년 미만 ^e	34	3.31	1.011		
	9년 ~ 11년 미만 ^f	38	2.97	.765		
	11년 이상 ^g	82	3.28	.952		
	합계	327	2.94	.945		
사회적 소속감	1년 미만 ^a	20	2.41	1.282	5.424***	g>a
	1년 ~ 3년 미만 ^b	41	2.51	.988		
	3년 ~ 5년 미만 ^c	71	2.91	.661		
	5년 ~ 7년 미만 ^d	41	3.04	.726		
	7년 ~ 9년 미만 ^e	34	3.10	.922		
	9년 ~ 11년 미만 ^f	38	3.07	.859		
	11년 이상 ^g	82	3.28	.876		
	합계	327	2.98	.899		
사회 적응	1년 미만 ^a	20	2.40	1.276	6.667***	e>b g>a, b
	1년 ~ 3년 미만 ^b	41	2.45	.944		
	3년 ~ 5년 미만 ^c	71	2.85	.638		
	5년 ~ 7년 미만 ^d	41	3.03	.726		
	7년 ~ 9년 미만 ^e	34	3.20	.907		
	9년 ~ 11년 미만 ^f	38	3.02	.794		
	11년 이상 ^g	82	3.28	.877		
	합계	327	2.96	.889		

***p<.001

마. 가정소득에 따른 사회적응의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소득에 따라 사회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표 IV-33>에 제시하였다. 사회적응은 사회적 활동 영역과 사회적 소속감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 모든 사회적 활동, 사회적소속감, 사회적응 모두 가정소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모든 영역에서 300만원~500만원 미만 집단이 100만원~300만원 미만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가정소득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구분	가정소득	N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사회적 활동	100만원 미만 ^a	37	2.99	1.105	4.718**	c>b
	100만원~300만원 ^b	218	2.83	.917		
	300만원~500만원 ^c	61	3.24	.840		
	500만원 이상 ^d	11	3.52	.990		
	합계	327	2.94	.945		
사회적 소속감	100만원 미만 ^a	37	2.92	1.063	4.464**	c>b
	100만원~300만원 ^b	218	2.87	.891		
	300만원~500만원 ^c	61	3.31	.779		
	500만원 이상 ^d	11	3.33	.628		
	합계	327	2.98	.899		
사회 적응	100만원 미만 ^a	37	2.95	1.059	4.853**	c>b
	100만원~300만원 ^b	218	2.85	.866		
	300만원~500만원 ^c	61	3.28	.788		
	500만원 이상 ^d	11	3.43	.780		
	합계	327	2.96	.889		

**p<.01

바. 한국어 사용능력에 따른 사회적응의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사용능력에 따라 사회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IV-34>와 같다. 사회적응은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소속감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 사용능력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한국어 사용능력 ‘상’ 집단이 ‘중’ 집단과 ‘하’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한국어 사용능력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구분	한국어 사용능력	인원수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사회적 활동	상 ^a	88	3.53	.979	29.713***	a>b, c
	중 ^b	195	2.79	.805		
	하 ^c	44	2.45	.923		
	합계	327	2.94	.945		
사회적 소속감	상 ^a	88	3.48	.823	26.686***	a>b, c
	중 ^b	195	2.87	.900		
	하 ^c	44	2.44	.899		
	합계	327	2.98	.865		
사회 적응	상 ^a	88	3.50	.778	30.625***	a>b, c
	중 ^b	195	2.83	.890		
	하 ^c	44	2.45	.889		
	합계	327	2.96			

***p<.001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연령대별, 최종학력별, 결혼기간별, 가정소득별, 한국어 사용능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결혼기간이 길수록, 가정소득이 많을수록, 한국어 사용능력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평생학습 참여실태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가. 평생교육기관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의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교육기관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는 <표 IV-35>에 제시하였다.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 모든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교육내용 영역에서는 사회복지관 참여 집단과 기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관 참여 집단이 여성단체 참여 집단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의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서는 사회복지관 참여 집단, 문화센터 참여 집단, 기타 기관 참여 집단이 각각 여성단체 참여 집단보다 참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평생교육기관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구분	평생교육기관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교육 내용	학교 또는 대학 ^a	36	3.69	.905	4.370***	c, h>g
	주민자치센터 ^b	26	3.71	.710		
	사회복지관 ^c	91	3.99	.845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d	4	3.88	.250		
	문화센터 ^e	26	3.83	.959		
	지방자치단체 ^f	6	3.42	.736		
	여성단체 ^g	20	2.90	1.199		
	기타 ^h	118	3.94	.841		
	합계	327	3.83	.901		

교육 방법	학교 또는 대학 ^a	36	3.65	.869	5.041***	c, e, h>g
	주민자치센터 ^b	26	3.67	.677		
	사회복지관 ^c	91	3.99	.868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d	4	3.75	.866		
	문화센터 ^e	26	3.87	.794		
	지방자치단체 ^f	6	3.17	.258		
	여성단체 ^g	20	2.85	1.160		
	기타 ^h	118	3.88	.854 .895		
	합계	327	3.79			
교육 환경	학교 또는 대학 ^a	36	3.69	.832	4.831***	c, e, h>g
	주민자치센터 ^b	26	3.54	.654		
	사회복지관 ^c	91	3.98	.909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d	4	3.92	.167		
	문화센터 ^e	26	3.99	.786		
	지방자치단체 ^f	6	3.22	.455		
	여성단체 ^g	20	2.87	1.177		
	기타 ^h	118	3.84	.876 .906		
	합계	327	3.78			
평생 교육 만족 도	학교 또는 대학 ^a	36	3.68	.808	5.176***	c, e, h>g
	주민자치센터 ^b	26	3.64	.633		
	사회복지관 ^c	91	3.99	.826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d	4	3.85	.344		
	문화센터 ^e	26	3.89	.758		
	지방자치단체 ^f	6	3.27	.317		
	여성단체 ^g	20	2.87	1.169		
	기타 ^h	118	3.89	.828 .858		
	합계	327	3.80			

***p<.001

나. 평생학습 참여기간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참여기간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IV-36>과 같다.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후 분석결과에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6> 평생학습 참여기간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구분	평생학습 참여기간	인원수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교육내용	3개월 미만 ^a	48	3.53	.808	3.000**	n.s
	3~5개월 미만 ^b	47	3.79	.889		
	5~7개월 미만 ^c	21	3.62	.669		
	7~9개월 미만 ^d	20	3.60	.661		
	9~11개월 미만 ^e	18	4.19	1.073		
	1년 이상 ^f	161	3.89	.928		
	기타 ^g	12	4.46	.891		
	합계	327	3.83	.901		
교육방법	3개월 미만 ^a	48	3.53	.795	2.479*	n.s
	3~5개월 미만 ^b	47	3.78	.954		
	5~7개월 미만 ^c	21	3.60	.625		
	7~9개월 미만 ^d	20	3.50	.725		
	9~11개월 미만 ^e	18	4.17	.985		
	1년 이상 ^f	161	3.86	.919		
	기타 ^g	12	4.25	.866		
	합계	327	3.79	.895		

교육환경	3개월 미만 ^a	48	3.49	.737	2.142*	n.s
	3~5개월 미만 ^b	47	3.74	.971		
	5~7개월 미만 ^c	21	3.76	.708		
	7~9개월 미만 ^d	20	3.55	.669		
	9~11개월 미만 ^e	18	4.20	.810		
	1년 이상 ^f	161	3.83	.961		
	기타 ^g	12	4.14	.989		
	합계	327	3.78	.906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3개월 미만 ^a	48	3.52	.713	2.717*	n.s
	3~5개월 미만 ^b	47	3.77	.903		
	5~7개월 미만 ^c	21	3.66	.609		
	7~9개월 미만 ^d	20	3.55	.649		
	9~11개월 미만 ^e	18	4.19	.893		
	1년 이상 ^f	161	3.86	.901		
	기타 ^g	12	4.28	.872		
	합계	327	3.80	.858		

*p<.05, **p<.01

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IV-37>과 같다.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으로 구분,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모든 영역에서 한글교육과 취업교육 참여집단이 인문교양교육 참여집단보다 평생학습 참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차이

구분	평생학습 프로그램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교육 내용	한글교육 프로그램 ^a	242	3.94	.805 .479	7.255***	a, c>e
	학력인정교육 프로그램 ^b	4	4.38			
	취업교육 프로그램 ^c	20	4.20	.71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d	7	3.36	1.249 1.244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e	27	2.98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f	6	3.50	1.183 .694		
	기타 ^g	21	3.43	.901		
	합계	327	3.83	.789		
교육 방법	한글교육 프로그램 ^a	242	3.92		8.411***	a, c>e
	학력인정교육 프로그램 ^b	4	4.13	.854 .766		
	취업교육 프로그램 ^c	20	4.1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d	7	3.29	1.220 1.238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e	27	2.93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f	6	3.25	.935 .638		
	기타 ^g	21	3.33	.895		
	합계	327	3.79			
교육 환경	한글교육 프로그램 ^a	242	3.88	.830 .569	6.287***	a, c>e
	학력인정교육 프로그램 ^b	4	4.25	.848		
	취업교육 프로그램 ^c	20	4.15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d	7	3.19	1.245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e	27	3.02	1.212 .779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f	6	3.78			
	기타 ^g	21	3.33	.632 .906		
	합계	327	3.78	.758		
평생 학습 참여 만족도	한글교육 프로그램 ^a	242	3.91		8.010***	a, c>e
	학력인정교육 프로그램 ^b	4	4.25	.618 .724		
	취업교육 프로그램 ^c	20	4.1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d	7	3.28	1.229 1.215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e	27	2.98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f	6	3.51	.822 .650		
	기타 ^g	21	3.37	.858		
	합계	327	3.80			

*** p<.001

라. 평생학습 참여동기나 목적에 따른 참여만족도의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나 목적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IV-38>과 같다.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한 동기나 목적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서 배우는 즐거움의 동기집단이 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육내용 영역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8> 평생학습 참여동기나 목적에 따른 참여만족도 차이

구분	동기나 목적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교육 내용	배우는 즐거움 ^a	56	4.01	.871	3.126**	n.s
	여가시간 활용 ^b	7	4.00	.577		
	친구 교제 ^c	7	3.79	.267		
	자격증 및 취업 ^d	49	3.52	1.254		
	바람직한 배우자 및 부모 ^e	35	3.99	.943		
	한국어 교육 ^f	155	3.88	.783		
	기타 ^g	18	3.22	.575		
	합계	327	3.83	.901		
교육 방법	배우는 즐거움 ^a	56	3.97	.876	3.509**	a>g
	여가시간 활용 ^b	7	4.07	1.018		
	친구 교제 ^c	7	3.86	.244		
	자격증 및 취업 ^d	49	3.52	1.186		
	바람직한 배우자 및 부모 ^e	35	4.00	.970		
	한국어 교육 ^f	155	3.83	.776		
	기타 ^g	18	3.11	.471		
	합계	327	3.79	.895		

교육 환경	배우는 즐거움 ^a	56	3.99	.846	3.091**	a>g
	여가시간 활용 ^b	7	4.05	.932		
	친구 교제 ^c	7	3.67	.667		
	자격증 및 취업 ^d	49	3.56	1.205		
	바람직한 배우자 및 부모 ^e	35	3.95	.950		
	한국어 교육 ^f	155	3.81	.815		
	기타 ^g	18	3.11	.428		
	합계	327	3.78	.906		
평생 학습 참여 만족 도	배우는 즐거움 ^a	56	3.99	.839	3.542**	a>g
	여가시간 활용 ^b	7	4.04	.796		
	친구 교제 ^c	7	3.77	.343		
	자격증 및 취업 ^d	49	3.53	1.175		
	바람직한 배우자 및 부모 ^e	35	3.98	.921		
	한국어 교육 ^f	155	3.84	.734		
	기타 ^g	18	3.15	.476		
	합계	327	3.80	.858		

**p<.01

평생학습 참여실태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를 살펴보면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나 목적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참여 평생교육기관 중 여성회관의 점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아 여성회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6. 평생학습 참여실태에 따른 사회적응의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참여 실태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참여 실태를 범주별로 통제하여 범주에 해당하는 사회적응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가.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따른 사회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표 IV-39>에 제시하였다. 사회적응은 사회적 활동 영역과 사회적 소속감 영역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 사회적 활동, 사회적 소속감, 사회적응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관에 참여하는 집단이 기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관 참여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9>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구분	평생교육기관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사회적 활동	학교 또는 대학 ^a	36	3.02	.677	4.547***	c>h
	주민자치센터 ^b	26	2.97	.898		
	사회복지관 ^c	91	3.28	.972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d	4	3.50	.527		
	문화센터 ^e	26	3.03	.827		
	지방자치단체 ^f	6	3.00	.782		
	여성단체 ^g	20	3.26	.718		
	기타 ^h	118	2.65	.866		
	합계	327	2.98	.899		

사회적 소속감	학교 또는 대학 ^a	36	3.13	.683	4.895***	c>h
	주민자치센터 ^b	26	2.93	.942		
	사회복지관 ^c	91	3.27	1.059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d	4	3.44	.747		
	문화센터 ^e	26	2.97	.895		
	지방자치단체 ^f	6	2.96	1.077		
	여성단체 ^g	20	3.14	.723		
	기타 ^h	118	2.58	.856		
	합계	327	2.94	.945		
사회 적응	학교 또는 대학 ^a	36	3.08	.628	5.073***	c>h
	주민자치센터 ^b	26	2.95	.899		
	사회복지관 ^c	91	3.28	.975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d	4	3.47	.595		
	문화센터 ^e	26	3.00	.830		
	지방자치단체 ^f	6	2.98	.890		
	여성단체 ^g	20	3.20	.687		
	기타 ^h	118	2.62	.831		
	합계	327	2.96	.889		

***p<.001

나.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에 따른 사회적응에 차이가 있는지의 결과는 <표 IV-40>과 같다. 사회적응은 사회적 활동, 사회적 소속감 영역으로 구분,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IV-40>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구분	평생학습 참여기간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사회적 활동	3개월 미만 ^a	47	2.96	.883	.953	-
	3~5개월 미만 ^b	21	2.90	.821		
	5~7개월 미만 ^c	20	2.97	.719		
	7~9개월 미만 ^d	18	3.32	1.122		
	9~11개월 미만 ^e	161	2.94	.881		
	1년 이상 ^f	12	3.38	1.400		
	기타 ^g	327	2.98	.899		
	합계	48	2.82	.812		
사회적 소속감	3개월 미만 ^a	47	3.10	1.000	1.099	-
	3~5개월 미만 ^b	21	2.75	.837		
	5~7개월 미만 ^c	20	2.81	.720		
	7~9개월 미만 ^d	18	3.13	1.158		
	9~11개월 미만 ^e	161	2.93	.926		
	1년 이상 ^f	12	3.38	1.483		
	기타 ^g	327	2.94	.945		
	합계	48	2.86	.795		
사회 적응	3개월 미만 ^a	47	3.03	.906	.972	-
	3~5개월 미만 ^b	21	2.82	.805		
	5~7개월 미만 ^c	20	2.89	.657		
	7~9개월 미만 ^d	18	3.22	1.115		
	9~11개월 미만 ^e	161	2.93	.868		
	1년 이상 ^f	12	3.38	1.431		
	기타 ^g	327	2.96	.889		
	합계	327	2.96	.89		

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사회적응에 차이의 결과는 <표 IV-41>과 같다. 사회적응은 사회적 활동, 사회적소속감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41>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구분	평생학습 프로그램	인원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사회적 활동	한글교육 프로그램 ^a	242	2.87	.892	2.423*	n.s
	학력인정교육 프로그램 ^b		3.42	.687		
	취업교육 프로그램 ^c	20	3.26	.85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d	7	3.43	.508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e	27	3.33	.925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f	21	3.17	1.188		
	기타 ^g	327	2.98	.848		
	합계	242	2.82	.899		
사회적 소속감	한글교육 프로그램 ^a	242	2.82	.936	2.957**	n.s
	학력인정교육 프로그램 ^b	4	3.31	.473		
	취업교육 프로그램 ^c	20	3.40	1.02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d	7	3.46	.783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e	27	3.26	.788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f	21	3.25	1.396		
	기타 ^g	327	2.94	.847		
	합계		2.94	.945		
사회 적응	한글교육 프로그램 ^a	242	2.84	.883	2.867*	n.s
	학력인정교육 프로그램 ^b	4	3.36	.569		
	취업교육 프로그램 ^c	20	3.33	.878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d	7	3.45	.581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e	27	3.29	.808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f	21	3.29	1.256		
	기타 ^g	327	2.96	.837		
	합계	327	2.96	.889		

*** p<.001

라. 평생학습 참여동기나 목적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나 목적에 따른 사회적응에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IV-42>와 같다. 사회적응은 사회적 활동, 사회적 소속감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 참여동기나 목적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 분석결과 사회적 소속감은 여가시간 활용의 동기집단이 바람직한 배우자 및 부모 동기집단과 한국어 교육 동기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활동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42> 평생학습 참여동기나 목적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

구분	동기나 목적	인원수	평균	표준 편차	F	Scheffe
사회적 활동	배우는 즐거움 ^a	56	3.03	.974	3.563**	n.s
	여가시간 활용 ^b	7	3.81	.802		
	친구 교제 ^c	7	3.07	.976		
	자격증 및 취업 ^d	49	3.31	.790		
	바람직한 배우자 및 부모 ^e	35	2.64	1.069		
	한국어 교육 ^f	155	2.87	.840		
	기타 ^g	18	3.13	.690		
	합계	327	2.98	.899		
사회적 소속감	배우는 즐거움 ^a	56	3.11	.990	5.326***	b>e, f
	여가시간 활용 ^b	7	4.18	.746		
	친구 교제 ^c	7	2.89	1.240		
	자격증 및 취업 ^d	49	3.23	.855		
	바람직한 배우자 및 부모 ^e	35	2.56	.995		
	한국어 교육 ^f	155	2.79	.886		
	기타 ^g	18	3.24	.699		
	합계	327	2.94	.945		

사회 적응	배우는 즐거움 ^a	56	3.07	.953	4.683***	b>e
	여가시간 활용 ^b	7	3.99	.669		
	친구 교제 ^c	7	2.98	1.094		
	자격증 및 취업 ^d	49	3.27	.767		
	바람직한 배우자 및 부모 ^e	35	2.60	.994		
	한국어 교육 ^f	155	2.83	.834		
	기타 ^g	18	3.18	.680		
	합계	327	2.96	.889		

*** p<.001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 참여실태에 따른 한국사회적응 차이를 살펴 보면 평생교육기관,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한 동기나 목적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은 사회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할뿐더러 높은 점수도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여기간별로 한국에서의 사회적응 정도를 높여줄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참여가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평생학습 참여실태와 한국사회적응 간에 변인을 찾았다. 그 변인들을 중심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생학습 참여실태 요인을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 참여기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 평생학습 참여동기나 목적, 희망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요인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한국사회적응에 관한 요인은 사회적 소속감, 사회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요인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 참여실태를 알아보고, 개인적 특성별로 평생학습 참여실태와 평생학습 참여만족도 및 한국사회적응을 분석하고, 평생학습 참여실태별로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와 한국사회적응에 대해 분석후 모든 요인들의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실태에 관한 내용이다. 참여 평생교육기관은 기타(다문화가족 지원센터, 36.1%), 평생학습 참여기간은 1년 이상(49.2%), 참여 프로그램 내용은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74.0%),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동기는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47.4%), 희망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39.1%)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 현재 가장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이며, 나아가 경제적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결

혼이주여성들이 많은 점에서 일선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발굴 및 기획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별로 평생학습 참여실태에 관한 내용이다. 지역별로 참여하는 평생교육기관은 울산과 충북은 기타(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관이 가장 높았고 부산은 사회복지관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전 지역에서 참여기간이 1년 이상, 한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평생학습을 참여하는 동기나 목적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취업교육 프로그램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적 구분 없이 평생학습 참여가 대체적으로 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 참여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기타(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관, 참여기간으로는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년 이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전 연령대에서 한글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나 목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높게 나타났다.

최종학력별 참여 평생교육기관으로는 고졸인 경우 사회복지관에, 중졸이하,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기타(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관에 많이 참여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으로는 1년 이상,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한글교육 프로그램, 참여동기나 목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기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은 자격증 및 취업의 목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전체적으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사용능력별로 평생교육기관 참여는 한국어사용능력이 ‘상’이라 응답한 인원 중에는 사회복지관이 가장 많았고, ‘중’과 ‘하’는 기타(다문화가

족지원센터) 기관이 많았으며, 프로그램 참여기간으로는 전 집단에서 참여기간이 1년 이상,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한글교육 프로그램, 참여동기나 목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취업교육 프로그램 비율이 가장 높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 집단은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 ‘중’ 집단과 ‘하’ 집단은 한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별로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관한 내용이다. 지역에 따른 차이로 울산과 충북지역보다 부산지역이, 연령에 따른 차이로는 30대와 40대에 비해 20대가, 최종학력에 따른 차이로는 대졸이상이 참여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결혼기간과 가정소득 및 한국어사용능력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별로 한국사회적응에 관한 내용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부산지역이, 연령에 따라서는 40대와 50대가, 결혼기간에 따라서는 11년 이상인 집단이 한국사회적응 정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에서 정착한 기간이 길었던 만큼 공동체 및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더 많이 체득해진 결과라 본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는 점은 평생학습 참여가 형식교육의 연장선으로 보여지며, “결혼이주여성의 학습경험은 미래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배움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기대한다.”는 선행연구 백은숙(2015)의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학습경험 의미 탐색’에서도 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가정소득에 따라서는 월소득 300~500만원 미만 집단이, 한국어 사용능력에 따라서는 ‘상’ 집단이 한국사회적응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 사용능력은 타국에서 정착을 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상생활의 기본도구로 여기며 필수적 요소로 작용된다. 이는 선행연구 신의현(2010)의 “한국

어 사용능력이 능숙해짐에 따라 사회적응 점수도 증가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실태에 따른 평생학습 참여만족도에 관한 내용이다. 평생교육기관에 따라서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복지관 참여 집단이, 평생학습 참여기간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후분석결과에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한글교육과 취업교육 참여집단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에 참여한 동기나 목적에 따른 차이에서 사후분석결과 교육방법과 교육환경 영역에서 배우는 즐거움의 동기집단이 참여만족도가 높이 나타났으나, 교육내용 영역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섯째,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실태에 따른 한국사회적응에 관한 내용이다.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따라서는 기타 기관이 가장 많은 참여율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 기타 기관은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단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기타 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였음을 여기에 덧붙인다. 한국사회적응 정도에 가장 높은 평생교육기관은 사회복지관에 참여한 집단이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에 따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분석되어 참여기간은 한국사회적응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는 한글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거의 모든 프로그램 내용이 집단 간 차이는 없지만 한국사회적응에 유의미한 분석으로 나타나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은 한국사회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교육부(2010)의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의 설문조사 내용 중 ‘평생학습 참여증진방

안'에서 “평생학습참여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좋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평생학습 참여동기나 목적에 따른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소속감은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평생학습에 참여한다는 집단이 한국사회적응 정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활동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평생학습 실태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 정도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기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요인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 내용에 맞추어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다(본 연구에서 기타에 해당).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이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이다.

넷째,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이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 참여결과 참여만족도에서는 사회복지관 참여 집단, 한글교육 참여 집단, 배우는 즐거움의 동기 집단이 참여만족도가 높이 나타났다.

여섯째,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 참여결과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평생학습 참여기간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사점 및 제언

논의와 결론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기관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요구에 적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인 한국어 위주의 교육에서 나아가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적응에 안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진행되었으면 한다.

둘째, 평생교육기관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 참여만족도를 위한 정보 수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평생학습 참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평생학습 참여를 위해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환경 영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 하는 결혼이주여성들도 많음을 인지하고, 이미 많은 교육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문학습 등 그에 따른 교육방법도 연구되어야 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평생학습참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 조사 결과 평생학습 참여실태에 따른 사회적응 차이에서 참여기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처럼 평생학습참여는 한국사회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한다.

넷째, 국가나 사회에서 필요한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지원에 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은 한국어 교육을 제외하고는 사업성 지원 교육으로 단기 과정이 많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알맞는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참여실태로 평생교육 차원의 실태조사에 대한 기초자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실태는 사회복지 차원의 자료로만 활용되어 왔는데 미래의 생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평생교육의 영역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도구 설정 시 개인적 특성별 문항 수가 많은 점과 질문내용의 문장 해독이 힘들다는 점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에서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개인적 정보 유출을 원하지 않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해독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힘들어 보였다. 차후 연구에는 문항 수를 줄이고, 개인정보유출의 느낌이 들지 않게 하며, 각 나라별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 구성으로 배려하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6대 영역에서의 연구가 미비한 점이다. 일선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한글교육·요리교육 등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교육기간이 짧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프로그램이 많아 본 연구의 취지에 미비하였다. 이는 평생교육의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자체 및 각 단체가 좀 더 활성화되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적합한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정착 초기에 한국사회적응을 위해 사회복지 차원의 프로그램과 함께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평생에 걸친 한국사회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연구가 절실하며, 전국적인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평생학습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후속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미(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유미(2008).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성공적인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용노동부(2016). 2016·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http://m.moel.go.kr>
- 곽효정(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경험학습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10). 201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http://www.moe.go.kr>.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http://www.moe.go.kr>.
- 교육부(2014). 보도자료. <http://www.moe.go.kr>.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갑현(2007). 국제결혼이주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무웅(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 참여특성 및 참여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 참여효과.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13). 결혼이주여성의 여가활동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2015). 결혼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주원(2009). 노인의 생활체육참여와 사회적응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홍섭(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적응과 성공적 삶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농림수산식품부(2014). 이민여성 농업인 1:1 맞춤형 농업 교육 추진 계획. <http://m.mafra.go.kr>.

백은숙(2015).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학습경험 의미탐색.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법무부(2016). 정부 3.0 보도자료. <http://www.moj.go.kr>.

사금(2014).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교육참여유형과 만족도에 관한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태제(2016).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송미애(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미애(2013).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평생교육.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의현(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특성과 사회적응의 관계.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2016). 연구보고.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http://www.mogef.go.kr>.

오미석(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 사례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순(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천석(2008).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비교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경민(2010). **고학력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희(2011). **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 참여도 분석**.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앙다문화교육센터(2017). **다문화교육지원정책**. <http://www.nime.or.kr>.
- 천순녀(2015). **부산지역 결혼이주 다문화여성의 문화적응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통계월보. 체류외국인 현황**. <http://www.immigration.go.kr>.
- 통계청(2015).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http://m.kostat.go.kr>.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7). <http://www.kihf.or.kr>.
- 행정안전부(2017).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http://www.moi.go.kr>.
- 행정자치부와 통계청(2015).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http://www.moi.go.kr>.
- 황병수(2016).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실태와 생활만족도 분석**.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THE INFLUENCE OF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OF
MARRIAGE MIGRANTWOMEN ON ADAPTATION
TO KOREAN SOCITY

Bong Ae Mo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November 2016,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reached about 2 million, and the number of marriage migrant women accounted for 253 thousand accounting for 0.5 percent of the nation's total population.

Marriage migrant women have many difficulties to settle down as a member of society because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social life style and culture of other countries.

They have difficulty adapting to society due to language differences, cultural and customary differences, economic difficulties, discrimination, vulnerable child care, and inadequate educational environment. Difficulty adapting to society involve various social problems. In severe cases, it also raises extreme consequences of domestic violence, family discord, and family failure.

Despite these difficulties, marriage migrant women are striving to develop their personal and social capacities required in Korean society and to spread their dreams and ideals as a woman. They seek to participate in a variety of lifelong learning programs implemented by institutions such as governments and municipalities and to achieve positive learning outcomes. This helps to adapt to Korean society.

The types of lifelong learning programs that marriage migrant women participate in are programs that focus on Korean social integration, such as Korean language education,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s, and Korean cuisine.

Since previous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multicultural education, this study has been examined in the category of six major areas of lifelong learning.

The subjects were 327 in Ulsan, Busan and Chungbuk. Using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33 questions, analyzing personal characteristics,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Korean social adaptation,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influence of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o marriage migrant women the necessity of lifelong learning and the implications for institutional measures to be supported by the state or society(such as support for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and research on lifelong learning in the whole country).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석사과정 문봉애입니다.

본 설문지는 『결혼이주여성의 평생학습참여가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을 위해 사용되는 설문이며,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설문지의 내용에 좋고 나쁜 답은 없으므로 솔직하게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지면 귀하께서 응답하신 소중한 자료를 연구에 사용할 수 없으니 귀하의 성의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자료는 평생교육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자료는 통계법 제8조에 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순수한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설문과 관련한 의문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메일 : mba29@hanmail.net

2017 년 2 월

지도교수 : 주 동 범
석사과정생 : 문 봉 애

※ 설문조사 응답 전 동의사항

1.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평생학습참여가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설문에 대한 응답사항은 모두 무기명으로 진행, 처리되어 설문응답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생활과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설문 결과 역시 위의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설문응답 자료는 논문작성 및 제출이후(2017년 8월 예정)에 모두 파쇄, 폐기합니다.
4. 여러분은 설문응답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위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설문조사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응답자 확인 서명 :

다음은 귀하의 개인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별로 하나만 골라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세요.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3. 귀하의 국적(모국)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국 ② 베트남 ③ 필리핀 ④ 일본 ⑤ 태국
 ⑥ 인도네시아 ⑦ 우즈베키스탄 ⑧ 기타 ()

4. 귀하의 한국에서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공장노동자 ⑤ 음식점 등 서비스직
 ⑥ 농·어민 ⑦ 자영업 ⑧ 기타 ()

5. 귀하의 남편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직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공장노동자 ⑤ 음식점 등 서비스직
 ⑥ 농·어민 ⑦ 자영업 ⑧ 기타 ()

6. 귀하의 결혼기간은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3년 미만 ③ 3년~5년 미만 ④ 5년~7년 미만
 ⑤ 7년~9년 미만 ⑥ 9년~11년 미만 ⑦ 11년 이상

7.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결혼 하셨습니까?

- ① 종교기관 ② 결혼알선업체 ③ 친구 ④ 행정기관 ⑤ 기타()

8. 귀하의 가정의 월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월급, 임대소득, 이자 등 포함)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300만원 ③ 300만원~500만원 ④ 500만원 이상

9. 귀하는 현재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다. (아들 : 명, 딸 : 명) ② 없다.

10.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남편 ② 남편과 자녀 ③ 시부모와 남편과 자녀 ④ 시부모와 남편
 ⑤ 기타 ()

11. 귀하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 : 한국 사람과의 대화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중 : 한국 사람과의 대화가 조금 어렵다.
 하 :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

- ① 상 ② 중 ③ 하

다음은 귀하의 평생학습참여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별로 하나만 골라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세요.

12. 귀하께서 현재 참여하고 계신 평생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학교 또는 대학 ② 주민자치센터 ③ 사회복지관 ④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⑤ 문화센터(백화점, 언론기관 등) ⑥ 지방자치단체 ⑦ 여성단체 ⑧ 기타 ()

13. 귀하께서 참여하신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개월 미만 ② 3개월~5개월 미만 ③ 5개월~7개월 미만 ④ 7개월~9개월 미만
 ⑤ 9개월~11개월미만 ⑥ 1년 이상 ⑦ 기타 ()

14. 귀하께서 참여하신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한글 교실, 한글인증시험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② 독학사, 고입/대입 검정고시, 학점은행제 강좌 등 학력인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③ 취업준비, 창업관련, 자격취득과정 등 취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④ 노래교실, 생활공예, 스포츠 강좌 등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⑤ 문학, 상담치료, 식생활, 컴퓨터, 역사(전통강좌) 등 인문교양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⑥ 주민자치교육, 국가정책이해교육, 환경실천교육 등 시민참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⑦ 기타 ()

15.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동기나 목적 때문에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하십니까?

- ① 배우는 것 자체가 좋아서
 ② 여가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③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④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받고 싶어서
 ⑤ 바람직한 배우자 및 부모가 되기 위해서
 ⑥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
 ⑦ 기타 ()

16. 귀하께서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한글 교실, 한글인증시험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② 독학사, 고입/대입 검정고시, 학점은행제 강좌 등 학력인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③ 취업준비, 창업관련, 자격취득과정 등 취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④ 노래교실, 생활공예, 스포츠 강좌 등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⑤ 문학, 상담치료, 식생활(요리포함), 컴퓨터, 역사(전통강좌) 등 인문교양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⑥ 주민자치교육, 국가정책이해교육, 환경실천교육 등 시민참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⑦ 기타 ()

다음은 귀하의 평생학습 참여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별로 하나만 골라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세요.

	질 문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7	교육내용이 나의 목표와 일치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교육내용이 질적으로 우수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교재가 적절하고 이해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20	전체적인 교육방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교육기관까지 오가는 거리가 적절하고 교통수단도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강사는 학습자의 욕구와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강사의 수업진행방식이 매우 합리적이고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귀하의 한국사회적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별로 하나만 골라 해당하는 번호에 √ 표시해 주세요.

	질 문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24	나는 사회적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한국에서 사용되는 낯선 언어에 어려움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6	한국의 문화에 적응이 잘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27	사람들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그들에게서 거리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현재 내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9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한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한국 사회의 법, 제도에 적응이 잘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